



매주일 듣는 설교말씀을 그저 듣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연결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 성경적 설교로 삶이 신앙과 연결되게 하라!

### 처치리더스.컴, 조수아 피즈 목사의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오게 하는 원리 소개

'2019 퓨리서치센터 설문결과에 따르면 한달에 한번 정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미국인들이 1년에 장례식이나 결혼식 때문에 교회에 가는 미국인들보다 적다(54% vs. 45%). 이 수치는 2009년 동 센터의 동일한 설문조사결과를 정면으로 뒤집는 수치다(52% vs. 47%). 따라서 미국인들이 점점 더 교회를 멀리하고 있다는 현상을 직시할 수 있는 통

계다.

조수아 피즈 목사는 갤러리서치 결과를 토대로,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다시 미국인들을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하는 통찰을 보여준다(Gallup Research: What Keeps People Coming Back to Church Week After Week Isn't the Cool Music).

사람들을 교회에 남게 하거나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교회에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는 수백권의 기사와 책, 논의에 밀바탕이 되는 질문이지만, 수많은 사람에게는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하다. 필자(Joshua Pease, "The God Who Wasn't There: looking for a Savior in the middle of pain"의 저자)는 기독교 고등학교와 대학을 다녔다. 그리고 스스로를 더 이상 기독교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친구가 최소 수십 명은 있다.



지난 4월 갤러리 조사에 따르면(Sermon Content Is What Appeals Most to Churchgoers), 답은 간단하다. 이들은 교회를 영적 진리에 관련된 원천이라고 보지 않았다. 자라나면서 교회에 출석했던 성인에게 왜 출석을 안 하느냐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3가지 대답은 '나름대로 예배하는 게 더 좋아서', '제도화된 종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신앙심이 많지 않아서'다.

한편으로, 이런 결과는 단순히 교회의 실패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우리들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고, 성경을

배웠고, 실제로 살아내도록 격려 받았지만 현재 교회를 나가버린 사람들을 알고 있다. 어떻게 주님이 사람들을 이끌고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신비는 '교회'는 000을 잘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상을 내포하고 있다.

사람들을 교회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갤러리조사는 교회 정기 출석자에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도 물었다. 영적인 관련성 (spiritual relevance)을 찾아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지만, 이는 또한 사람들이 교회에 남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설교에서 영적인 관련성을 찾고 있다. 응답자들이 가장 필요를 느끼는 부분은 성경에 대해 가르치는 설교를 듣고(83%) 삶이 신앙과 연결되도록 돕는 것이다(80%). 일상생활과 관련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필사적으로 관련성을 찾는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돌

아오기를 원하는가? 목회자에게 가장 힘이 되는 부분은 주일에 설교를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듣고 있다는 것이다. 설교는 사람들에게 중요하다, 매주 직장과 가정, 세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성경의 복음을 듣기를 바라며 모습을 드러낸다.

이는 또한 '강해'와 '주제' 설교의 논쟁이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면, 어떤 기준에서 사람들은 둘 다 필요하다. 주제로 표현된 강해로 표현되지, 모든 청중은 다음 날 행동으로 바로 옮길 수 있는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기를 바라고 있다.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기, 바로 지금 오고 있으며,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설교와 교회공동체를 통해 자신들이 찾고 있는 영성은 예수님 안에서 실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점이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다.



뉴욕교협 임시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부회장 문석호 목사 당선

### 뉴욕교협 임시총회, 총 58표 중 46표 받아

뉴욕교협(회장 양민석 목사) 임시총회에서 부회장에 문석호 목사(뉴욕효신장로교회)가 선출됐다. 이로써 46회기 회장단은 인선을 모두 마치게 됐다.

지난 12월 9일 오전 10시 30분 뉴욕그레이트넥(양민석 목사)에서 열린 부회장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에서 단일후보 문석호 목사는 58명 총대 중 찬성 46표, 반대 9표, 무효 3표로 부회장에 당선됐다.

문석호 목사는 "회장을 도와 임원들과 협력해 나갔다. 생산적이고, 개교회가 할 수 없는 교협이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거에 앞선 후보 인사말에서 문석호 목사는 "단일교단 3년 출마금지 법에 따라 후보를 사퇴했는데 기만, 능욕 이런 말은 하지 말아달라"며 "회장, 부회장은 특권이 아니고 희생 봉사하는 것이다. 부회장, 회장

으로 본질에 대한 것만 하겠다. 섬김과 희생으로 투명하고 정명하게 일하는 교협의 초석을 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거에서 선관위원장 한재홍 목사가 문석호 목사 단일후보 추천 과정을 설명하자, 후보로 등록했다가 서류미비로 탈락된 김영환 목사가 발언권을 얻어 서류미비(세칙 12조 11항 2년간 재정결산서 CPA공증)에 대해 상황설명을 하며 '한 사람을 세우려고 자신을 의도적으로 탈락시킨 데'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김영환 목사는 발언을 계속하지 못하자 피켓을 들고 회의장 안을 시위하기도 했다.

정순원 목사가 박수로 추대하자고 동의했으나 범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와 투표에 들어가 문석호 목사가 약80%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이종진 목사 3면



아는게 힘이다! 새라김 사모 5면



중세교회 1000년 조진모 목사 7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  
캠 퍼 스 | 온라인  
www.wmu.edu | (213)388-1000 | 500 Shatto Pl., Los Angeles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책소개 / 성경 / 신학 / 목회 / 기쁜 / 교회음악 / 영성 / 영성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05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346-0030 5 Riverchase Terrace Paramu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jgbbook.org / cjb@1919.org  
323-737-7699, 800-669-0451  
1027 J.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악, 동시공역기, 생가곡집 수문 제작, 타월, 선불 주문 제작  
TEL. 714.830.2211 | Fax. 714-330-8080 | bibw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새해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며 **장영출 목사**

# 2020 신년 축복 성회

반백년을 말씀을 듣고 전 세계를 성령과 동행한 믿음의 선배로부터 목회 현장에서 반드시 전해야 할 핵심 주제를 듣는다.

- 2020년 1월 13일 오후 2시 - 1월 16일 오후 4시  
목회자 초경 성경 핵심 세미나 "복음의 본질과 생명의 영성"  
목회자, 사모, 평신도사역자 대상
- 2020년 1월 13일 - 1월 16일 밤 7시  
일반 대중집회 "새해 새은혜 새생명"
- 장소 임마누엘 수양관 (29365 Richmond Tpke, Ruther Glen VA, 22546)
- 접수 804-994-5441 | sisusa@gmail.com | 크리스찬 심 목사
- 지참물 성경 필기도구 개인 실내화 필수

\*숙식제공 가능하니 미리 연락 바랍니다.



**장영출 목사 약력**

- 공군사관학교 졸업
- 장로회신학 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미국 사우스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졸업
- 미국 서든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 졸업
- 철학박사
- 신학박사
- 공군 군종감 역임
- <현재>
- 예수제자선교회 회장
- "생명의 영성"저자

주최: 예수제자선교회 국제목회자아카데미  
후원: 엠마오 연합감리교회(김철기목사), My Good Shepherd



● 발행인 칼럼 ●

# 보셨어요? 이 눈물을!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전도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연로하신 권사님이 전도사님에게 전화를 하셨다고 한다. 주치의의 바꾸고 싶으니 도와달라고 하셨다. 자신의 주치의가 너무 불친절하여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으신다. 주치의의 바꾸시길 간절히 원하시니 도움을 드렸고 새로운 의사를 만나는데 전도사님도 같이 가신 것이다. 권사님이 그 의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다가 평평 우셨다고 한다. 그 때 권사님의 새로운 의사가 전도사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보셨어요? 이 눈물을! 이 눈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권사님이 그동안 만났던 의사는 매번 권사님이 어떻게 아픈지 듣지도 않고 또 달리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고 똑같은 약만 계속 처방해주었다는 것이다. 아픔이 몸에도 마음에도 맺혀 있으셨던 권사님은 새로운 의사가 자기를 이야기를 상세히 들어주는 것만도 고마워서 그렇게 우셨다고 한다. 새로운 의사는 환자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시는 장로님이시라고 들었다.

아들을 달라던 하나의 눈물만 그렇겠는가. 죄를 씻어 달라던 하나의 눈물만 그렇겠는가. 병을 고쳐 달라던 히스기야의 눈물만 그렇겠는가. 그 누가 흘리든지 눈물은 사사(私私)로운 것이 아니다. 눈물은 그냥 뺨을 타고 흘러 땅에 떨어지는 것이 종착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눈물을 보신다. 그리고 그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 그 병에 눈물이 차고 넘치는데도 가만 계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눈물로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셨다.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로 겸손한 왕을 빚으셨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로 포기하지 말라는 교훈을 일깨우셨다. 하나님은 눈물을 보신다. 그리고 그 눈물을 가지시고 반드시 무엇인가 일을 하신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면서 늘 보았던 장면이 있다. 무릎 꿇어 기도하시던 아버님과 그 바로 옆에 놓인 눈물 젖은 아버님의 손수건이다. 매일 눈물 흘리시던 아버님이 눈물이 없는 하늘나라로 가신지 27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공사(工事) 중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님의 눈물을 여기까지의 나를 빚어 가시는 재료 중 하나로 사용하셨음을 부인(否認)하기 어렵다. 아버님이 떠나신 후 그 긴 세월 동안 내 손수건엔 땀이 자주 적혀지긴 했지만 눈물로 흠뻑 적혀진 적은 정말 적었다. 성도들을 위한 목사의 눈물을 보실 기회가 너무 적으셨던 하나님. 자녀들을 위한 아버지의 눈물을 보실 시간이 너무 없으셨던 하나님. 나의 이 부족한 눈물로는 무엇을 제대로 빚으실 수 없으셨을 터이니 그들을 위해 다른 재료들을 많이 사용하셨으리라.

“내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간혹 듣는 말이다. 과거, 누군가에 무언인가 받은 상처 받은 그 어렸을 적의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내 속에서 울고 있다는 그럴듯한 이론이다. 그 말이 성경적인 표현인가에는 의구심(疑懼心)이 있다. 그 대신 성경에는 “마음이 상한 자”(시34:18), “우는 자”(롬12:15), 그리고 “애통하는 자”(마5:4) 등등의 구절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들의 장례행렬 가운데 있던 여인에게 “울지 말라”(눅7:13)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눈물을 보고 계신다. 그 눈물에 관심이 많으시다. 나는 어떤가? 환자를 단지 돈으로 바라보는 의사가 있겠고 환자의 눈물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의사가 있다. 이런 경우가 없기를 바라지만, 만일 환자의 아픈 마음까지 깊이 생각하는 의사에게 “보셨어요? 내 환자의 눈물을! 그 환자가 목사님 교회 성도라고 하던데요” 라는 말을 듣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어도 함참 있지 않겠는가.

# 기도는 의무 아닌 기쁨에 이르는 길!

## 리더십저널, 팀 켈러목사가 소개하는 칼뱅의 4가지 기도원칙 소개

현대는 기도 부재의 시대라고 할 만하다. 인터넷이나 SNS 등으로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기도가 없다. 그리스천에게 기도 없는 삶은 영적 건강을 악화시키는 치명적인 독성 바이러스와 같다. 결국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은 급속도로 피폐해질 것이다.

E.M. 바운즈는 기도는 사역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기도는 그 자체가 막강한 힘으로서 모든 것에 생명과 힘을 불어넣는다고 말했다. 이렇듯 삶이나 사역에서 기도를 강력한 힘으로 삼고 있지 않는 사역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사역에서 연약한 도구이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무기력할 뿐이다.

팀 켈러 목사는 자신에게 가장 도움을 주었던 기도 안내자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준다(Prayer: Experiencing Awe and Intimacy with God). 그는 어거스틴, 마르틴 루터, 존 오웬, 장 칼뱅의 기도법을 우리에게 간략하지만 핵심 원리들을 소개한다. 특히 칼뱅의 “기독교강요”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행복한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방법은 매우 유익하다.

사랑스럽고 행복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라.

칼뱅이 내놓는 첫 번째 기도원칙은 '경외', 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는 그리스천에게 무엇보다도 기도의 실상이 얼마나 엄중하고 광대한 일인지를 의식하기를 요구한다. 기도란 우주를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엄에 이끌려 세속적인 염려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기도에 임해야 한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란 개념이다. 보통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벌을 받을까 걱정하는

기꺼운 존경에는 이처럼 두려운 측면이 내재돼 있다. 경외하는 마음이 깊은 까닭은 영망진창이 되지 않으려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 아무 자격 없이 영원토록 한결같은 은혜를 받는 수혜자가 됐음을 믿는 그리스천은 역설적이게도 사

쁘게 헤드릴 수 있다'거나 주님은 '경건한 행위 자체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식의 발상을 단호하게 배격했다.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에 무자비하리만치 정직해야 한다. 얼굴에 가면을 뒤집어쓰는 허구를 무수

용서와 도우심을 한층 더 간절히 사모하게 만든다. 칼뱅은 '온전한 마음으로 찾지만 하면 그분은 어김없이 만나 주신다(렘29:13-14)...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에는 회개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스스로 저지른 잘못에 책임을 지는 대신 우물거리며 자신의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린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게 아니다. 기도는 자기 합리와 남 탓, 자기 연민, 영적인 교만 따위를 버리기를 요구하고 또 그럴 힘을 준다.

믿음과 확고한 소망은 기도의 동력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기도원칙은 짝을 이루므로 비교하면서 살펴본다. 세 번째 원칙은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 그리스천은 바라는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 이는 예수님의 원칙이다. 기도하는 이는 예외 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하는 까닭이다. 기도는 독보적인 방식으로 모든 필요와 소원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겸손은 기도의 요인과 열매

### 하나님 신뢰 의지, 확신 소망으로...은혜로 자격 받아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라고 한 뒤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고 덧붙인다. 그리스천이 갖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제대로 살지 않으면 영적으로 버림을 받을까 끊임 없이 노심초사한다는 의미는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천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 평소에도 한없이 존경하던 인물과 식사를 한다고 상해보자. 이처럼 대단한 존재를 실제로 만난 것이 실감나지 않을 것이다. 당황해서 몸이 떨리고 진땀이 나서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할 것이다. 이는 화를 입거나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

랑스럽고 행복한 두려움이 갈수록 깊어지게 마련이다. 하나님 안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행복은 느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룩한 임재 가운데 머무는 특권으로 가슴이 떨리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갈망이 나날이 짙어진다.

회개는 기도의 동기이자 열매다.

두 번째 기도원칙은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의식은 허구를 몰아낸다'는 것이다. '영적인 겸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지목하는 얘기다. 그는 중세의 보편적인 시각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경계한다. '경건한 행위로 하나님을 기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알고, 회의와 두려움 따위를 솔직히 인정하며 그분 앞에 나와야 한다.

겸손은 기도하게 만드는 요인 동시에 '열매'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데려간다. 인간의 결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현장이다. 결함과 결핍에 대한 새로운 자각은 그리스천을 이끌어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며 주님의

것이다. 그때에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다.

네 번째, 그리스천은 확신과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 칼뱅은 참다운 겸손함에 사로잡히고 압도됐다 할지라도 반드시 응답을 받으리라는 확고한 소망을 품고 기운을 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언뜻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4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p><b>·L.A. Office</b>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213) 674-7982 (내선) (323) 965-0009 (광고국) · E-mail: lachpress@gmail.com</p>	<p><b>· N.Y. Office</b> ·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 (718) 886-4400 (내선) (718) 886-4424 (편집국) · Fax (718) 886-0074 (내선) · E-mail: nykchpress@gmail.com</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 (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0, July 6, and Nov 30.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 응시자격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 Div 학위를 졸업 하였거나 2020년 6월 30일 이전(30일 포함)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의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는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를 가진 분.

### 고시과목

- a) 필기고시: (1) 교회사 (2) 조직신학 (3) 미국장로교회사 (4) 헌법 (이상 4과목)
- b) 제출고시: (1) 구약주해 (2) 신약주해 (3) 논문 (4) 설교원고 (이상 4편)

### 제출 고시 내용

- (1) 구약주해: 요월 2-28-32
- (2) 신약주해: 베드로전서 2:1-10
- (3) 논문제목: 복음과 율법 관계를 개혁주의 관점에서 논하라
- (4) 설교본문: 학개 1:1-8
  - 설교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 할 것.
  - 고시 기간 중 설교실고시를 치름.
- (5) 제출 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 \*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부는 PDF 파일로 서기에게 이메일 할 것.
  - 레터 (8-1/2" x 11") 용지를 사용 할 것.
  - 한글 11호 크기의 폰트 사용, 줄 간격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호 Double Space)
  -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결장과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10매 정도).
  -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 할 것.
  -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이름에 본인이름 및 과목 주제 이름을 사용 할 것. (예: 조성훈구약주해.pdf)
  - 파일이 너무 크면 나누어서 이메일로 보낼 것.

c) 면접고시

### 서류제출요령

- a)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0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0년 3월 31일 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 b)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c) 합격자 발표는 44회 총회기간(5월 12일-15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합격증서 수여함.

### 고시일자 및 장소

- a) 일자: 2020년 5월 5(화) - 6(수)
- b) 장소:
  - 동부: 퀸즈장로교회(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김성국 목사)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 서부: 임마누엘장로교회(Emmanuel Presbyterian Church, 손연배 목사) 4435 Fortran Dr. San Jose CA 95134

### 응시서류

- a)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20년 6월 30일 이전(30일 포함) 졸업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 b) 신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 c)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 d) 소속노회 목사후보승 증명서 1부
- e) 이력서(안력과 자세한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 년도와 교회, 세례집행자) 1부
- f) 명함판 사진 2장
- g) 고시료: \$100 (USD) Pay to the order of - KAPC

### 참고사항

- a)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장의한 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월 5일-6일 총회고시장소) 중에 사용할 숙소를 예약 할 것.
- b)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허락 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 당함.
  -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 할 것.

### 제출처

고시부서기: Rev. Euihan Jang(장의한 목사)  
주소: 6 Westminster Dr. Londonderry, NH 03053-3436 U.S.A.  
전화: (603) 553-1991 이메일: euihan@hotmail.com

### 기타문의

- a) 고시부 부장: 한재현 목사 (831) 920-7043 jhanrev@gmail.com
- b) 고시부 서기: 장의한 목사 (603) 553-1991 euihan@hotmail.com

##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 총회장: 양수철 목사
- 서기: 한일철 목사
- 고시부부장: 한재현 목사
- 고시부서기: 장의한 목사



# 신뢰 통해 배우고 완벽으로 나아간다!

## 에온, 최근 연구결과 더 많은 것 배울 수 있다고 보도

우리는 주변에서 사람을 너무 믿어서 고통 받는 이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사기 피해를 입은 고객, 연인에게 배신당한 사람, 친구에게 뒤통수를 맞은 사람 등 다양하다. 당신도 누군가를 믿었다가 상처받은 경험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런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우리는 사람들이 타인을 너무 믿고, 속아 넘어가기 쉬운 존재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이런 편견은 사실과 다르다.

미국에서 수집된 신뢰 관련 최근 데이터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타인을 믿음직한 존재로 여기는지를 말해주는 대인신뢰도는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람들이 실제로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됐을 가능성은 낮다. 실제로 범죄율은 지난 수십 년 간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주류 미디어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확성을 자랑하고 있음에도, 언론에 대한 신뢰도 역시 바닥을 기고 있다. 과학에 대한 믿음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기후변화나 백신문제에 이르기까지 과학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누군가를 신뢰함으로써 얻어지는 유익은 상당하다고, '에온(Aeon)'은 보도한다(The smart move: we learn more by trusting than by not trusting).

사회과학자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신뢰를 하는지, 얼마나 신뢰할만한 존재인지를 연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갖고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익명의 두 사람이 참여하는 신뢰게임(trust game)이다. 참여자 1에게는 소액의 돈이 주어지고, 참여자 2에게 얼마나 돈을 떼어 줄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참여자 2는 그 액수의 3배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 다시 얼마를 돌려줄 지를 결정해야 한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전통행사인 인간 탐험기가 진행되고 있다.

위대한 사회학자 도시오 야마기시의 자택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암투병으로 쇠약해진 상태였음에도 연구에 대한 열정과 날카로운 그대로부터. 당시 우리는 신뢰와 불신 사이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할 때 우리는 그 신뢰가 정당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파악하게 된다. 지인이 집에 며칠 머물다가도 되겠냐고 물어볼 때, 이를 수락하면 그가 좋은 손님이었는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 동료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써보라고 조언할 때, 그 조언을 따라야 그 프로그램이 기존 프로그램보다 나은지를 알게 된다.

반면, 누군가를 불신한다면 그가 믿음직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지인을 집에 초대하지 않는다면 그가 좋은 손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고, 동료의 조언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프로그램이 좋은지 나쁜지, 그 동료가 이

분야에서 믿음직한 조언자인지 아닌지는 영영 알 수 없게 된다.

정보의 비대칭이란 우리가 불신보다 신뢰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우리는 신뢰를 통해 특정 개인에 대해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일 반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더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 더 신뢰함으로써 더 나아지는 것이다.

야마기시와 그 동료들은 신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배움의 이점에 대해 연구했다. 그들의 실험은 신뢰게임과 비슷하지만 돈을 건넬지 말지, 얼마나 건넬지를 결정하기 전에 참여자들끼리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했다. 가장 잘 믿는 참여자가 믿음직한 사람을 골라내고, 누구에게 돈을 보내야 할지를 결정하는데 가장 뛰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영역에서도 같은 패턴이 발견됐다. 미디어를 더 신

뢰하는 사람들이 정치와 뉴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다. 과학을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과학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다. 이 증거가 상관관계로 남는다 해도, 더 잘 믿는 사람이 누구를 믿을지에 대해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은 옳은 것이 된다. 신뢰도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연습을 통해 완벽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야마기시의 통찰은 우리에게 타인을 신뢰해야 할 이유를 알려준다. 하지만 그렇다면 퍼즐은 더욱 복잡해진다. 만일 신뢰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아끼지 않아야 할까? 아니면 믿음이 지나칠 정도로 믿어야 되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이유, 즉 우리가 불신보다 신뢰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불신하게끔 만든다.

우리의 믿음이 배신당했을 때, 즉 믿지 말아야 할 이를 믿었을 때 그 대가는 눈에 두드러진다. 우리의 반응도 짜증에서부터 분노와 절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이점은 간과하기 쉽다. 반대로 믿었어야 할 누군가를 믿지 않았을 때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지인을 집에 머무르게 해주었다면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었겠지만, 애초에 맺어지지 않은 우정에 대해서 우리는 알 길이 없다. 추천 받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써보지 않는다면,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유용한 것인지 알 길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충분히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잘못 믿었다가 치르게 되는 대가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믿지 않아서 치르게 될 대가는 그만큼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숨겨진 비용과 이점, 즉 신뢰함으로써 배우게 되는 것, 얻게 되는 사람, 습득하게 되는 지식 등을 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누군가를 믿어 보는 것은 도덕적인 일일 뿐 아니라 스마

하게 된다"며,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로 살게 되는 4차원의 영성 능력으로 부끄럽지 않은 목사로 살자"고 말하고 통성기도를 인도했다.

(유원정 기자)

# 시론

## 시온을 기억하며 울자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조선 인조(仁祖)때 예조판서를 지내다가 병자호란으로 항복하게 되자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하다가 청나라로 끌려간 청음 김상헌의 시조는 온갖 근심과 격정으로 가득 차 있다. 청음이 그렇게 근심과 격정을 하는 이유는 시절의 어지러움과 불안함, 그러한 시대를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움 때문이었다.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라마난/시절이 하 수상(殊常)하니 울동말동 하여라

무릎 꿇은 임금의 신하로 포로가 되어 떠나는 그에게는 상황을 바꿀 힘도 없었고 되돌아올 미래도 없었기에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한숨지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인생이란 늘 이리했다. 잠시 쉬어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조 한 수 읊을 여유마저 없이 바쁘게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지식과 경험과 경력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비법과 묘수들을 짜내느라 마음까지 오그라들어 누추해진 모습들.

T.S. 엘리엇의 '황무지'의 3부 불의 설교는 이렇게 시작한다. "님프들은 떠나갔다..... 주소조차 남기지 않고. 레만 호숫가에 앉아 나는 울었노라, 고운 템즈강이여, 부드럽게 흘러라 내가 노래를 마칠 때까지(By the waters of Lemman I sat down and wept)." 또한 톨스토이도 "인간은 강물과 같이 않은가"라고 노래했고, 구상 시인도 "강은 못 인간의 갈원(渴願)과 오열(嗚咽)을 안으로 안고 흐른다"고 읊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학작품 뿐 아니라 성경역사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눈물의 시대를 갖고 있었다. "바벨론 강변에 앉아 울었노라 By the rivers of Babylon we sat down wept."

시론을 쓰기 위해서는 시대를 바라봐야 하는데 바라보아야 할 이 시대가 얼마나 암울한지 바벨론 강가에 앉아 그 백성들처럼 울고 싶은 마음이다. 그런데, 바벨론 강변에 앉은 이 백성들의 노래가 의외로 시137편에 실려 있는 것을 본다. 시편이 대부분이 기원전 1천년대 즉, 다윗과 아삽의 노래들인데 비해 137편의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는 약 500년의 시차를 두고 슬쩍 끼어들어있다. 시편의 여호와 찬양과 감사와 때론 비탄의 흐느낌들 속에 다른 시대의 눈물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그 눈물의 노래 속에 한줄기 희망이 보인다. 눈물로 부르는 그 노래가 포로의 노래가 아니라 시온의 노래였다는 것이다.

세상은 세상전문가들의 분석과 전망에 맡겨야 한다. 세상에는 시온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서도 시온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 한국정치의 좌-우 대립이 극에 달해가고 있는 상황 속에 교회, 심지어 멀리 떨어져있는 이민교회도 좌-우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 포스트모던(現代後)의 해체주의 사상이 교회에도 들어와 전통적 가치나 공동체적인 가치기준을 거부하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교회들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의 교회,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해체되어 자기가 해석한 하나님의 뜻이라며 해체된 각각의 교회들이 성경의 말씀을 좌의 사상을 펼치는 도구로, 우의 사상을 변호하는 도구로 각각 사용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하나님 까불지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했다는 목사출신(?)의 퀘변가가 선포하는 이 시대에 교회가 회복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시137편에 등장하는 바벨론강가, 그 포로 된 자리와 같은 이 시대, 동시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포로상황, 눈물의 환경 속에서도 불러야 할 노래를 가르쳐주고 싶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렇다. 교회들이여 시온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요새인 시온, 삶에서 잃어버린 그 시온을 기억하자. 그러면 마침내 그 곳으로 돌아가게 되리라.

### <1면에서 계속>

양민석 회장은 총대들에게 "회의에 임하는 태도가 분열된 모습과 소리로 어필하기보다 논리와 이성으로 진행하며 회의 이후 결정사항에는 승복하며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마무리를 지었다.

회의에 앞서 한 예배는 김경열 목사 인도로 기도 이준성 목사(뉴욕목사회 회장), 성경봉독 이광모 장로(회계), 말씀 이만호 목사(중경회장), 축도 신현택 목사(중경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만호 목사는 "4차원의 영

성을 회복하라"(사61:1-11)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피폐해졌을 때 주신 말씀이 본문이다. 성령이 임하면 첫째, 복음운동이 일어난다 둘째, 치료 회복운동이 일어난다 셋째, 목사의 사명이 불붙어 살게 된다 넷째, 의와 찬송을

하게 된다"며,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로 살게 되는 4차원의 영성 능력으로 부끄럽지 않은 목사로 살자"고 말하고 통성기도를 인도했다.

(유원정 기자)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20.

###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through June 30 of 2020)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 Exam Subjects

- a) Written Test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 b) Written Assignment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3) Thesis Paper (4) Manuscript of Sermon

- (1) OT Exegesis Text : Joel 2:28-32 (2) NT Exegesis Text : 1 Peter 2:1-10
- (3) Thesis Topic : Discu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spel and the Law in terms of the Reformed Perspective
- (4) Sermon Text : Haggai 1:1-8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①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 ②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 space,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 ③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 ④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 ⑤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euihan@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 ①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 ②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SungcheonChoOTExegesisPaper.pdf)
  - ③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c) Oral Interview

###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a)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20.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20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b)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 c)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4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12-15, 2020).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announced on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 Exam Date and Place

- a) Dates : May 5(Tue)-6(Wed), 2020
- b) Place : Eastern Region: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Rev. Seoung Kook Kim)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estern Region: Emmanuel Presbyterian Church(Rev. Won Bae Son) 4435 Fortran Dr. San Jose CA 95134

### Accompanying Documents

- a)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of Bachelor &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through June 30 of 2020.
- b)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 c)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d)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e) Curriculum Vita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f)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g) Fee: \$100 (USD). Pay to the order of - KAPC

### Miscellaneous Information

- a)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5-6, 2020) through Rev. Euihan Jang.
- b)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 Submit To

Rev. Euihan Jang  
Address : 6 Westminster Dr. Londonderry, NH 03053-3436 U.S.A.  
Cell : (603) 553-1991 E-mail : euihan@hotmail.com

###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a) Chair of the Exam Committee  
Rev. Jae Hyun Han (831) 920-7043 jhanrev@gmail.com
- b) Clerk of the Exam Committee  
Rev. Euihan Jang (603) 553-1991 euihan@hotmail.com

##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 회 장 : 양수철 목사  
서 기 : 한일철 목사  
고시부부장 : 한재현 목사  
고시부서기 : 장익한 목사



#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 성탄의 계절에

고국을 방문하고 두 달 만에 돌아왔다. 그동안 밖에 놓아둔 화분이 제일 힘들어 했지 싶다. 물을 주지 않아 흙이 바짝 말라 오그라들었다. 마치 늙고 병든 노파처럼... 나를 보자마자 "물물물" 하고 외치는 것 같다. 식물이 푸르른 것도 자

연적 현상이 아니라 수분을 공급하기 때문임을 기르는 화분을 통해 깨닫게 된다. 식물은 이처럼 자신은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데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상관 없다고 큰 소리를 친다. 식물이 물을 갈망하듯 우리

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한다. 목마른 사슴이 헐떡거리며 물을 찾듯이 말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인생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간다. 그리고 성도라고 해도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질실하게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며 산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화분의 식물을 키우기 위해 사람들은 수고한다. 수시로 물을 주고 때가되면 분갈이도 하고 영양분도 공급해야 한다. 역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매일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여 그 주시는 영적 힘과 진리의 재료를 가지고 세상을 대면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넘어지지 않게 된다. 혹 넘어진다 해도 곧

일어나게 된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과신한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 역시 세상에는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 있다. 힘도 있고 하도 일도 잘되고 형통하여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한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 하늘에서 비웃으신다고 하셨다.

그런 자도 영적으로 관조하면 말라버린 화분의 식물과 같을 뿐이다. 영적으로 한없이 초라하고 말라비틀어진 연약한 모습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하는 인생일 뿐이다.

지구촌의 모든 인생들이 저자거리의 잠상처럼 떠돌며 거만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

영혼의 빈곤함과 그 결과 영원히 저주 받게 될 인생임을 아셨기 때문이다. 어찌면 쇠를 짊어지고 화염 속으로 치달려가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적나라한 영적 모습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시고 세상에 오신 역사적 순간의 날이 성탄절이다.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발을 디디신 날이요, 구체적 형상을 입으신 순간이다. 그렇다면 성탄이야말로 우리의 구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는 때다. 더 나아가서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로서 구원의 첫발을 내딛는 순간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서는 유월을 통해 구원 받은 때를 해의 첫날이 되게 하라고 명하셨다. 하물며 성탄을 통해 구속의 영광을 덧입게 된 날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요, 영원한 세계를 향해 첫발을 내딛는 거룩한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진리를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그렇다면 성탄을 감격으로 맞이하는 사람은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우리는 간구해야 한다.

모두가 누리게 하소서, 성탄의 놀라운 비밀을!

그래서 날 위해 구주께서 오셨다고 믿게 하소서.

성탄의 아름다운 계절에!

chiesadiroma@daum.net

# 푸/른/초/장

안신기 목사  
(한사랑성결교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롬8:7-9).

우리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 때에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둘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도록 도우실

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이는 선악을 아는데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라는 유혹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류 최초의 범죄가 선악에 대한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 전이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지금도 모든 일들에 대해 우리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려는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모든 일들을 판단하는데 앞서 나가기 쉽습니다. 선악을 판단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불리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 판단을

8절에도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가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게 하시기 위해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고전12:4-11),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 교회의 집사로 세우게 하셨습니다(행전6:3).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워집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이 쉬워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낳아 주시게 하시니,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낳아 주시게 하시니(8:14-18).

넷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낱마다 우리의 능력을 낱마다 강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도 하고(롬8:26) 우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엡3:16). 우리가 자칫 낱마다의 영적 싸움에서 지쳐 쓰러질 때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의의 정병으로 세워주십니다(롬8:1). 절망과 좌절의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성령님을 소멸치 않고 낱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롬14:17)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할 이유

##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구약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신학을 제의하고서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이동성(역동성)을 강조하여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에 성령의 기름부음을 통해 자신의 사역자들이 일하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도 초월성과 이동성(역동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 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사모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하는 이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 때에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롬8:16)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 하시나니...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도우십니다(갈5:16).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 때에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성경은 성령을 진리의 성령(요15:26, 요16:13)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거나 불순종하는 마음이 너무 클 때 일어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도우십니다(갈5:25).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

말겨드리에 인색합니다. 하지만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가치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임을 낱마다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부정확한 것인지도 알려주십니다.

셋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일하도록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며 주의 성령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눅4:18). 사도행전 1장

# 기도는 의무 아닌 기쁨에 이르는 길!

(2면에서 계속) 열심과 확신을 품고 기도해야 할 까닭은 무엇이나 하면, 주님은 간구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선

하시며 사람이 많은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님은 종종 자녀들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은총을 베푸신다. 왜냐하면 따로 구하지 않고 선한 것들을 받으면,

내심 스스로 뚝뚝하거나 열심히 일해서 얻은 열매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마7:7)이라고 말한다. 확신과 소망을 품고 구하라. 그러면 청을 드리게 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수 없이 큰 자제로 그 결과를 조절하신다.

참된 기도는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다.

전등 스위치를 올리면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 그렇다면 스위치가 전구에 에너지를 공급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빛은 전기에서 나왔다. 스위치는 에너지 자체가

아니라 전구를 동력원과 연결시켜주는 장치일 뿐이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늘 아버지께 나갈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우리는 어떤 말과 행동으로도 하나님께 나갈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으로 가능하다. 기도는 은혜로, 은혜를 좇아 빚어진다.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선물로 하나님께 나갈 자격을 얻었기에 행복한 두려움을 누리거나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김성국 지은이  
천성 가시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대답하셔야 합니다.

# 히즈핑거 (His Finger)

“너는 아느냐”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 이름입니다.

책에 대한 문의는 히즈핑거  
이메일 hisfinger8386@gmail.com  
또는 전화 (718)886-4040, (323)665-0009로 연락해 주세요.



#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 고교 미식축구팀의 기도 금지판결 뒤집은 제11순회법원-소송 배경과 과정 정리



2015년 Florida High School Athletic Association(FHSAA, 플로리다 고등학교체육협회)에서 캠브리지크리스천고등학교(Cambridge Christian High School)와 잭슨빌 대학교고등학교(University Christian High School)에서 풋볼경기 전에 공개적으로 기도를 못하도록 소송을 걸은 후, 2017년 2월에 결국은 플로리다주 하급 법원에서까지 고등학교선수들의 기도할 수 있는 자유를 금지시켰던 케이스가 지난 11월 18일, 부당한 판결에 대해 재 소송을 했던 두 고등학교들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다주었습니다.

미연방법원의 11회 순회 항소법원이 플로리다 주정부의 부당한 판결을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캠브리지 기독교학교 법적대리인으로 나선 First Liberty Institute 변호단은 설명하기를 "FHSAA는 두 학교 경기가 도시 소유이고 FHSAA(체육협회)가 국가기관이었기 때문에 두 개의 사립 기독교 학교가 단 1분 동안이라도 나라 재산인 마이크를 통해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 자체도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제안했는데, 이것은 참으로 비상식적"인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주정부의 물건은 곧 시민들의 세금으로 구입한 시민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 FHSAA와 주 하법부가 이런 황당한 결정을 내린 후, 선수들과 코치 그리고 팬들은 매우 실망했습니다. 팀 선수 중 한명인 Jacob Enns는 당시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챔피언십 경기에 출전하게 되어 정말 기쁩습니다. 제가 팀에 온 이래로 기도하며 하나가 되고 용기를 얻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라는 걸 알며 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다고까지 협박적으로 말했고 우리의 전통은 망가뜨렸습니다.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 기도해왔다고 또한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잭슨빌 기독교 고등학교 풋볼팀 변호를 맡았던 First Liberty Institute 법률 고문인 Hiram Sasser은 2015년 당시, FHSAA의 부당한 발언과 주장에 하급 법원이 동의하는 판결을 했던 것이 얼마나 부당했는지를 주장하며, FHSAA가 당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다음과 같이 전하며, 그들의 의도는 단지 기도를 금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FHSAA 가 한 이야기: "경기 전에 학생선수들이 스피커를 통해 기도하고 경기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고 부끄러운 행동인지 우리는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그런 행위(기도)는 위협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라는 황당한 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전의 판결을 뒤집고 승리할 수 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기존 판결 내용이 바뀐 가장 큰 이유는 11순회 항소법원(The 11th Circuit Court)의 판사 구성원이며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11th 순회 항소법원에는 총 12명의 판사들이 있는데, 이번 판결을 낸 12명중, 2018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수많은 반대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지명한 기독교 가치관을 중요시 여기고 헌법을 헌법대로 해석하는 보수 판사들이 새롭게 4명씩이나 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뽑은 남아있는 진보(반기독교) 판사들 4명과 클린턴과 조지 부시 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뽑은 판사들의 타이트(tight)한 "가치관 전쟁"에 대한 판결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새롭게 갖춘 제11 순회법원은 2015년에 두 기독교 고등학교들의 언론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지킬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잃었던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고 있

지만 사단은 매우 싫어하는 영적 전쟁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동안 목회자들과 교회를 움추리게 했었던 Johnson Amendment 철폐에 대한 행정명령을 즉각적으로 내리고, 크리스천들을 억압했던 오바마 전행정부의 반기독교 정책들을 뒤집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들과 약속한대로 미국 헌법을 처음에 쓰인 의미대로 존중하며, 미국을 미국으로 만들어준 기독교 신앙을 존중하는 보수 판사들을 미연방법원과 연방차원의 지방 법원들안에 신속히 임명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 3년반동안 오바마 전 대통령이 뽑은 반기독교 정신을 가진 판사들이 더 많았던 법정에서 신앙을 지키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비즈니스, 온 재산까지 잃어버렸던 크리스천들에게 대안 역할적인 법정 케이스들이 다시금 신앙의 자유를 되찾고, 미연방법정에서 승리하는 케이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기독교 고등학교 케이스도 그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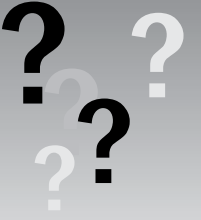
선수 중 한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표하고 있다.

물론, 주류미디어는 이런 승리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언론을 색깔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기독교 가치관을 존중하는 새로운 판사들을 뽑을 때마다 험악한 공격과 거짓 뉴스, 거짓증언자들을 내세워 방해하는 무리들이 대단히 많았지만 지금까지 새롭게 뽑힌 판사들과 특별히 플로리다에서 2018년부터 새롭게 뽑힌 보수 판사들이 이번에도 잃어버렸던 신앙의 자유를 찾아주고 특별히 크리스천 청소년들에게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주어서 감사한 일입니다.

계속하여 이 땅에 주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자유를 우리 모두가 힘써 지키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교회에서 만난 어떤 자매와 결혼목적으로 현재 교제 중에 있습니다. 그 처녀는 참으로 신앙심이 나보다 좋고 인품도 훌륭해 나의 좋은 내조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학교 친구의 소개로 한 처녀를 만났는데 외모나 학력, 재정적인 능력은 현재 교제하는 그 처녀보다 낫고 매력적이어서 내 마음이 끌려 혼동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신앙심은 없습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LA에서 청년 kim

A: 질문 감사합니다. 남자들은 대개 여성의 외모에 끌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결혼 배우자의 A(Age) B(Background) C(Career) D(Degree) E(Economic) 5가지를 많이 보지만 그 다음인 F(Faith)를 보는 것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결혼 대상자는 제일 첫째가 믿음입니다. 중생한 크리스천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후 6:14-16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러므로 신앙심이 없는 자와 결혼하는 것은 소와 말이 함께 거리를 하며 발을 갈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움을 위해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과거 그리스 선박왕 역만장자 오나시스는 자기를 잘 내조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는 무대에서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 마리아 칼라스의 현란한 모습을 보고 한 눈에 반했습니다. 마리아 칼라스와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하여 그는 본부인인 조강지처와 이혼을 하고 마리아

### 결혼의 제일 조건은 신앙... 믿지 않는 자와 멍에 매지 말라

칼라스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다 몇 년도 못가 그녀는 주부로서는 너무 모자란다고 권태가 나서 결국 또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대통령 케네디가 암살당하고 그 영 부인이 혼자되자 미모와 명성의 여인 재클린에게 마음이 끌려 다시 장가가려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 미모의 여인 재클린과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세기의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 그것도 결국 아니었습니다. 일주일도 못가 오나시스는 "내가 큰 실수를 했다 파혼하는 길이 없을 까?" 친구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재클린은 엄청난 위자료료 요구합니다. 그러니 이혼도 못합니다. 재클린이 한 달에 쓰는 돈이 약 240만불 정도 됩니다.

이렇게 돈을 펍펍 쓰니 오나시스는 화가 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비행기 사고로 죽습니다. 그 충격으로 오나시스는 결국 얼마 못살고 시름시름하다 죽었습니다. 끝까지 이혼에 합의를 해주지 않던 재클린은 오나시스의 엄청난 유산을 다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나시스는 가슴을 치고 후회하다 죽습니다. 천사처럼 노래를 잘 부르는 칼라스와 살아도 세계 최고의 미모의 여자 재클린과 살아도 행복은커녕 후회뿐이었습니다. 그 두 여인들은 사회적 명성과 미모는 훌륭했는지 모르나 실제 결혼해 살아보니 한 남자를 내조하고 행복하게 하는 데는 크게 미흡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현재 내 곁에서 남편을 내조하고 가정살림 잘하는 그런 평범한 여자가 정말 가치 있다는 것을 오나시스는 죽을 때야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이란 현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의 가치를 인정고 감사하는 정신에 있습니다.

#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 (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빈즈화리(BINJHWARI)

빈즈화리라고 알려진 빈즈화리족은 마드하 프 레데쉬, 마 하라스트라, 비하르, 그리고 서부 벵갈지역 등 여러 동인도 중앙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빈즈화리어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있는 빈즈화리족은 그들만의 농장을 소유하고 있다. 그들은 매우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을 지닌 종족으로 알려져 있으며, 평범한 얼굴과 검은 피부 그리고 탄탄한 체형을 지녔다. 또한 덤수룩한 머리를 그대로 유지한다.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힌두니즘은 빈즈화리족의 생활에 깊숙이 침투하게 됐다.

어나면서부터 결정된다.

삶의 모습

빈즈화리족의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들에게 토지는 경제적인 가치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다. 주요 농산물은 쌀이며, 토마토와 오이, 호박, 칠레고추 같은 겨울야채를 재배하기도 한다. 그들의 농사기법은 주변 힌두종족들로부터 배운 것이다. 또한 그들은 주로 여성들에 의해 선택되는 독특한 결혼풍속을 갖고 있다.

빈즈화리족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농장에서 기른 음식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자급자족의 형태를 보인다. 음식을 사기 위해서 주말시장에 가지는 않지만 가끔 담배나 마른생선, 소금, 등유, 옷 등의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서 시장을 찾기도 한다.

빈즈화리족은 보통 20에서 50가구가 살고 있는 중간규모의 촌락을 형성하고 있다. 각각의 집들은 흙으로 집을 짓고, 짚을 이용해 지붕을 만들며 대개 하나 내지는 두개의 방이 딸려 있다. 그리고 촌락의 주요도로를 따라 주변에 위치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들의 생활환경은 위생적이지 못하다. 또한 염소나 가금류 등의 동물들은 길거리에서 자유롭게 키운다.

신앙

힌두니즘이 만연해 있는 빈즈화리족은 힌두종교로 분류되며 많은 힌두신과 여신들을 모시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은 빈즈화리족은 토속신앙을 함께 섬기고 있다. 그들의 최고신인 빈디아 바시니(Bindya Basini)신은 돌로 만든 여성형상이다. 그들은 이 여신이 그들을 보호하며, 항상 위험에서 구해 줄 수 있는 구세주라고 믿고 있다.

빈즈화리족은 다양한 신들을 집에 모시고 생활하며 낱겉의 쌀이나 우유, 다과류 그리고 집에서 기르고 있는 염소 등을 봉헌물로써 바친다. 조상숭배는 그들의 또 다른 종교의식 중 하나다. 빈즈화리족은 조상들이 다시 자신들의 자녀로 태어난다고 믿고 있으며, 매년 그들을 위한 축제를 연다.

필요로 하는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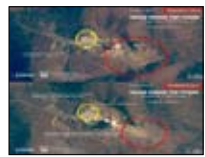
현재 빈즈화리족을 전도할 선교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모국어 성경과 영화 '예수', 기독교방송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北 '중대한 시험' 은 ICBM용 로켓엔진시험?

북한이 지난 7일 서해 위성 발사장지에서 진행했다는 '대단히 중대한 시험'에 대해 로켓엔진 시험 관측이 제기됐다. 로켓엔진은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에 제시한 '연말 시험'을 앞두고 압박을 고조시키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제프리 루이스 미 미들베리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8일 트위터에 "플래닛(상업용 위성업체)이 제공한 (시험) 전과 후로 추정되는 사진을 보면 서해에서 로켓엔진시험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서해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위성(장거리 로켓) 발사장을 말한다.

그는 지난 7일 오후 2시25분, 8일 오전 11시 25분에 촬영한 위성사진 두 장을 첨부해 비교하면서 "차량과 물체들이 시험을 위해 7일 나타났다. 이들은 8일 대부분 사라졌지만 현장에 시험에 따른 가스분출로 어지러워진 상태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7일 위성사진에는 동창리 발사장 시험대 앞에 최소 4~5대의 차량 또는 컨테이너로 추정되는 물체가 보인다. 하지만 8일 위성사진에는 엔진 시험대 남쪽 상단까지 지표면에 먼지와 모래가 쌓이며 지형이 바뀌었다.

일본 정부도 북한의 '중대한 시험'과 관련해 자국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NHK방송은 9일 방위성 간부를 인용해 이번 시험이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간부는 "장거리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더욱 늘리기 위한 실험 가능성도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을 흔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탄도미사일은 최초 상승 후 포물선형 탄도를 그리며 날아가 낙하하는 미사일을 지칭하는데, 중간에 대기권을 돌파하기 위해 로켓엔진을 사용한다. 고도 통신은 북한이 언급한 시험 내용이 불명확하다면서 오엔진 연소 실험 등 ICBM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와 관련해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을 둘러싼 동향에 중대한 관심을 갖고 정보 수집·분석을 하고 있다"며 "미국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필요한 정보 수집·분석, 경제·감시에 모든 힘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전념하는 것을 포함, 북·미 두 정상의 합의가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는 것"이라며 "계속 북·미 프로세스를 확실히 후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2019년 12월 7일 오후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됐다"며 시험이 성공적이었다고 밝히면서도 중대한 시험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비핵화 그만" 레드라인 밝은 北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미국 대선에 개입하기 (interfere with)를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비핵화 이슈는 (북·미) 협상 테이블에서 이미 내려졌다"며 미국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북한이 미국 대선에 개입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나는 놀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그가 무엇인가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관계는 매우 좋지만 약간의 적대감이 있으며, 그것에 대한 선의의문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의 적대적 행동 가능성에 대해 "놀랄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만류와 경고의 신호를 동시에 보냈다. 또 북한의 대선 불개입을 기대했지만 "지켜봐야 한다"면서 의심의 시선을 버리지 않았다.

김 대사의 언급에 대해서는 "지켜보겠다"고만 답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김 대사가 "비핵화 이슈는 (북·미) 협상 테이블에서 이미 내려졌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 대사의 주장은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그동안 북한이 미국에 경고했던 수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분석했다.

김 대사는 로이터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는 미국 내 정치 여건과도 고려한 '시간 벌기 속임수'(time-saving trick)"라고 비판했다. 김 대사가 언급한 미국 내 정치상황은 2020년 미 대선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김 대사는 "우리(북한)는 지금 미국과의 긴 대화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대사의 주장대로 북한이 비핵화 이슈를 북·미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비핵화 이슈는 북·미 대화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미국으로부터 대북 제재 해제와 대북 적대정책의 폐기를 얻어내기 위해 북한이 고의적으로 업포성 주장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북한이 미국 대선까지 고집하면서 미국을 압박한 것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그동안 유예했던 핵 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해 미국 대선에 변수를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 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자제했던 것을 외교 처치처럼 자랑해 왔는데 북한이 도발을 재개하면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면서 내건 연말 시험이 다가오면서 북·미 사이에 오가는 말이 거칠어지고 있는 것은 위험스러운 징후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 영국 런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2년 만에 '로켓맨'이라고 부르면서 군사력 사용을 시사하자 북한 외교의 실세 최설희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언이 아니라 의도적인 표현이라면) 정말로 늑다리의 명령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진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라고 비판했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는 도발을 감행할 경우 자칫 북·미 관계가 충돌 상황으로 급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첫 공개된 '우버 성범죄' ...1년간 3045건

지난해 미국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 우버의 운행 중 발생한 성범죄가 3045건에 달했다. 성폭행 피해자 대부분은 승객이었다.



5일 뉴욕타임스는 우버가 최초로 낸 안전 보고서에 토대로 지난해 우버와 관련된 성범죄는 총 3045건이었다고 보도했다. 안전 문제를 지적받아온 우버가 이같은 수치를 구체적으로 공개한 건 처음이다.

우버 관련 성범죄에는 원치 않는 입맞춤, 입이나 성기 등 특정한 신체 부위 만지기, 성폭행, 성폭행 시도 등이 포함됐다. 우버 관련 성범죄는 2017년 2936건에서 1년 사이 3.7% 늘었다. 성폭행 피해자의 92%는 승객이었다. 성폭행을 제외한 다른 성범죄의 경우에는 승객과 운전자의 피해자 비율이 비슷했다고 우버는 밝혔다.

우버 측은 지난해 미국에서 전체 운행 건수가 13억건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성범죄는 0.0002%의 확률로 벌어지는 일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건수로 보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기도 하다. 토니 웨스트 우버 최고법무책임자(CLO)는 "이 통계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우버는 우리가 서비스하는 사회의 거울"이라고 우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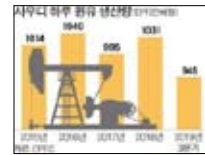
지난해 우버 관련 살인 사건과 총돌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각각 9명, 58명이었다. 2017년의 살인 사망자는 10명이었다. 2년 동안 19명이 살인됐으며, 이중 운전자와 승객이 각각 7명, 8명이었다. 4명은 행인 등 제3자였다.

NYT는 많은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들이 사업 초기 차만 갖고 있으면 운전자 자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범죄 이력 등을 살피지 않았으며 택시 업계처럼 까다로운 잣대를 운전자에게 들이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운행 중 성범죄, 살인 사건 등이 증가하면서 안전 우려가 커졌다.

안전 문제가 불거지자 우버는 운전자의 운전 기록과 범죄 전력을 주기적으로 볼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했다. 지난해부터 이 시스템으로 운전자 4만명이 미국에서 걸러졌다. 웨스트는 "우버가 안전 자료를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며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대중에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산유국 하루 50만배럴 추가감산...

석유 수출국 기구(OPEC)회원국과 비회원국들이 내년부터 하루에 50만 배럴씩 추가 감산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감산되는 원유량은 하루 170만 배럴에 이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추가 감산으로도 전체적인 공급과잉을 막기 어려워 유가 인상을 끌어내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 통신과 CNBC 등 외신은 현지시각으로 6일 OPEC+(플러스)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OPEC+는 OPEC에 속한 14개 국가와 OPEC 회원국이 아니지만 원유를 생산하는 러시아·멕시코 등 비(OPEC) 10개국 등 총 24개국의 모임이다. 이들은 전 세계 원유의 절반 가량을 생산하고 있다. 사우디 에너지 장관인 압둘아지즈 빈 살만

왕자는 OPEC+ 회의 개막식에서 "종교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신자라면 실천해야 한다"며 "실천이 없다면 당신은 불신자"라며 회원국들에 감산 약속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하루에 생산되는 원유량이 170만 배럴 줄어들 전망이다.

감산 기간은 내년 3월까지로 이후 계획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OPEC+는 지난 7월 회의에서 하루에 120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하는 정책을 내년 1분기까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추가 감산으로 OPEC+가 원하는 유가 인상을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블룸버그 통신은 유가 인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사우디 등 일부 산유국이 현행 할당량보다 더 적은 양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는 데다 석유 수요 증가가 둔화하는 추세를 고려하며 추가 감산 합의의 의미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례로 사우디는 현재 하루 1030만 배럴을 생산하기로 돼 있지만 실제 생산량은 하루 평균 980만 배럴에 불과하다. OPEC+를 구성하고 있는 앙골라와 아제르바이잔, 멕시코 역시 할당량을 채우기 어려운 상태다. 여기에 미국의 셰일 오일 공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OPEC+가 감산을 해도 전체적인 공급 과잉 현상을 막기 어렵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아래로 다시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콩서 '시위 관광' 상품 등장

지난 6월 초부터 시작된 홍콩의 민주화 요구 시위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홍콩에서 '시위 관광' 상품이 등장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8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홍콩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클 창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 '홍콩 프리 투어'에서 홍콩 시위 현장을 방문하는 '시위 투어(Protest Tour)'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들어가면 '누구나 환영하지만, 자신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경고를 읽을 수 있다.

이 '시위 관광'은 홍콩 정부가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복면금지법을 발표한 지난 10월 4일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이뤄진 시위 관광에서 마이클 창은 관광객들을 데리고 코즈웨이베이, 침사추이, 센트럴 등 홍콩 시위의 중심지를 방문해 관광객들이 직접 시위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위 관광에 참여하는 사람은 대부분 미국인이거나 영국인이지만, 가끔 홍콩인이 참여할 때도 있다고 한다.

영국에서 온 지리 교사 앤디 존스는 "영국 정부는 홍콩에 가면 시위 현장을 가능한 한 피할 것을 당부하지만, 나는 홍콩 시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다"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최루탄 연기를 눈과 목구멍,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위 관광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지만, 관광객들이 원하는 만큼 기부금을 가이드에게 줄 수도 있다.

시위 관광을 개발한 마이클 창은 "이 상품은 관광객들이 홍콩의 현실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홍콩 시위가 안전한지, 아닌지는 그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느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어떤 만남

2016년 2월, 로마가톨릭교회 교황과 동방정교회 총대주교가 한 자리에...

하나의 공동체로 출발한 중세교회는 1054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뉘어졌다.

30개항으로 구성된 그들의 공동성명에서 서로 등을 돌린 두 교회가 한 자리에...

두 교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출발부터 많이 달랐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였으며, 서로 상이한 문화와 사상의 토양에서 성장하였다.

이외에도 두 교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는데, 현저한 신학적 견해 차이 때문이었다.

좀 더 쉽게 설명해보자. 동방교회는 저수지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에 비유할 수 있다.

성자는 저수지로부터 집까지 연결되는 파이프이며, 성령은 집에서 저수지 물을 직접 접하게 해주는 수도꼭지와 같다.

서방교회는 건전지에 흐르는 전류로 비유할 수 있다. 건전지를 사용하면 반드시 두 극을 접속시켜 전류를 흐르게 해야 한다.

두 교회 모두 성령이 '성부'로부터 유출되었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성자의 역할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자신들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자들의 주장을 거부하고 성부와 성자가 신성에 있어 동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표현하고자 하려는 의지가 드러난 것이다.

서방교회는 성자가 성부에게 존속된다는 동방교회의 견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자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 내실 성령..."

자존심 대결

'필리오케' 논쟁은 단순한 신학적 이견의 대립 이상의 것이었다. 두 교회의 자존심이 걸린 사항이었다.

1271년, 그레고리 10세(Gregory X, 1210-1276)가 교황으로 선출되자 동방교회와의 갈등을 종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회의 연합이 재차 시도되었다. 그 당시 교황 에우제니오 4세(Eugenius IV, 1383-1447)는 공의회 수위설을 주장하면서 교황권을 약화시켜 교회의 세력을 잡으려는 자들을 대항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었다.

원래 이탈리아의 페라라에서 개최하려 하였지만 메디치 가문의 도움을 받아 플로렌스에서 모임이 개최되었다. 7000명이 넘는 동방교회의 대표자들과 동로마 황제가 함께 참석하였다.

그러나 동방교회의 수장인 총대주교의 갑작스런 죽음과 마르코스라는 주교의 적극적인 반대로 인하여 공의회는 개인적인 것이며 향후 주교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를 얻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역시 서방교회를 향한 자존심을 지울 수 없어 교회를 연합으로서 재차 공의회 결정이 무효화되고 말았다.

중세교회 1000년 - 어둠에 잠긴 구속역사의 현장 (51)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필리오케 논쟁으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분열 현재까지 하나님나라 진보를 위한 '순결과 연합'의 조화 속고해야

스탄티노플 신경에 부가한 내용이 아니며,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이 신경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을 더욱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임을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동방교회는 서방교회의 '필리오케'를 전적으로 거부하였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자께서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라고 언급된 대로 성부가지닌 신적권을 성경적 근거로 삼았다.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결과는 교황에게 매우 고무적인 것이었다. 동로마제국의 황제가 단시간 안에 교황수위권을 인정하고, 동방교회는 독자적인 신경을 가질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재연합에 대한 결의가 무효화되었다. 공의회에서 이뤄진 결정에 대하여 동방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크게 반발하였다. 동로마제국의 황제가 '필리오케'를 받아들인 것은 신학적 고민의 결과가 아니었다.

시간이 흘러 1438년부터 2년간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공의회에서 두 교

외발 교회

145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30년에 로마의 수도를 옮긴 뒤 1123년 동안 유럽문명을 주도했던 동로마제국이 멸망했다.

우리는 현재 서방교회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동방교회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후기 중세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리 파스하지는 않다.

covenantcho@yahoo.com

Church directory section with heade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and a grid of church listings including names, addresses, and contact info.



# 리더십 코멘터리 (101)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 리더의 연말결산을 위한 제안

미래에 대한 기대에 벅차오르는가?

빌리 그레함에게 한 기자가 “목사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이었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빌리 그레함은 한 마디로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빌리 그레함 같이 탁월한 영적리더도 인생이 너무 짧다고 생각한다면 보통 사람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시간이 빨리 간다. 연말이 오고 있고 곧 2020년이 다가온다. 당신은 리더로서 내년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미래에 대한 기대에 벅차오르는가? 아니

놓아줘야 한다. 선과 악을 포함해서 금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회개하고, 용서하고, 풀어주고, 놓아주라. 리더인 당신이 서있지 말아야 할 곳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없다.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라. 올 한 해 당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고 불쾌감을 느끼고 피해를 보았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라. 가해자의 사과나 미안하다는 말을 들을 필요 없이 지금 여기에서 용서하라.

## 관계는 훈련으로... 관계 맺을 때 경계하고 조심, 기도하고 투자해야 악의 세력에겐 단호히 대처하고 충돌하는 것이 관계리더십의 균형

만 아직도 2019년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가? 다음 해를 진실과 성실로 결실 맺기를 원한다면 올해 경험한 것들을 반성하며 연구해야 한다. 연말이 끝나기 전에 리더가 해야 할 일들이 여기에 있다. 이를 통해 내년을 대비할 수 있다. 결실을 맺기 원하는 리더들이 해야 할 항목들을 제안해 본다.

회개 기도와 용서

리더로서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것을 다음 해로 넘기지 말라.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보면서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그것을 전능자에게 고백하기 바란다. 충실한 기도생활로 고백할 죄가 없다면, 죄를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창조주께 감사하라.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 기도한 것들에 대한 신앙기록을 만들었는가? 당신의 기도내용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살펴 보기 바란다. 기도 응답받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당신의 삶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더 많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다면,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연말이 되기를 바란다.

내년에 하나님이 리더인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비전을 받기를 원한다면 과거를

리더십의 핵심은 관계 맺기

리더십의 핵심은 관계 맺기에 있고, 리더의 진정한 능력은 관계를 잘 맺는 것이다. 좋은 관계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 사람들이 죽을 앞에서 후회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한 안타까움이다. 관계를 잘 맺는 인생은 후회가 없다. 인간관계에서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본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 조직과 공동체 속의 리더로서 누군가가 욕심 부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그를 미워하기보다는 원래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다. 관계는 영성이다. 누가 영성이 깊은 자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잘 맺는 자이다. 관계는 행복의 열쇠가 된다. 관계가 잘되는 곳에 화목과 평화가 넘친다. 교회이든 단체이든 화목하고 평안하면 행복하게 된다. 교회마다 관계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관계리더십을 실천해야 한다.

구약의 잠언을 연구해보면 인간관계의 교과서인 것처럼 관계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다. 잠언 속에 모든 인간관계의 지혜가 나타나 있다. 잠언은 정직함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정직한 자는 신뢰를 얻게 되

지만 정직하지 못하면 신뢰가 깨진다. 신뢰가 깨지면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리더는 정직을 연습하고 실천해야 한다. 관계리더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혜와 사랑이다. 여기서 지혜는 분별력, 위기관리능력, 적응능력, 판단력을 의미한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전 10:10).

한국교회의 미래 대안은 관계훈련

리더십에 있어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리더는 관계를 소홀히 여기면서 살아간다. 관계리더십의 핵심은 살리고 세우고 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병든 자, 낙심된 자를 살리셨다. 우리는 주님처럼 살리는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되어야 한다. 무엇을 하든지 살려주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남을 살리면 내가 살고, 남을 죽이면 내가 죽는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다. 리더는 관계를 깨지 말고 세우는 일에 힘쓰고 투자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셨다. 주다는 것은 희생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헌신과 희생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리더는 모든 것을 주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

관계리더십은 무조건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의미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고 관계를 맺었지만 바리새인들과는 충돌하고 관계를 맺지 않으셨다. 주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자들과는 강하게 충돌하셨다. 악과의 충돌도 관계이다. 사단과는 관계를 맺을 수 없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에게는 단호히 대처하고 충돌하는 것이 관계리더십의 균형이다.

한국교회의 미래 대안은 관계훈련에 달려 있다. 리더는 관계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관계훈련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 맺기에 실패하지만 관계리더는 태어남과 동시에 훈련으로 만들어진다. 관계가 잘되면 모든 사역이 즐겁고 행복하다. 관계를 세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깨어지는 것은 순간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되 관계를 맺을 때 경계하고 조심하라. 관계를 위해 기도하고 투자하라. 관계리더십을 통해 모든 사역이 기쁘고 믿음의 여정이 평안해지며 성장과 성숙은 열매로 맺히게 된다. 연말결산의 자리에서 관계리더십을 통해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리더가 되기를 소망한다.

sondongwon@gmail.com

#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 아픔을 통한 승리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끊임 없이 진력한다. 풀과 나무들도 무표정하게 태연해도 크고 작은 나무들이 겨우내 땅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새봄의 싹을 내기 위해 인내하며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친다.

요단강 앞에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발을 내딛어라 내가 너를 크게 증가 시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 발을 내딛지 않으면 하나님도 증가시킬 수 없다는 말씀일 것이다. 또한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겠다’는 말씀도,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신 말씀 역시도 발바닥으로 밟지 않으면 또 입을 크게 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다. 성경은 어디나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는 영적인 승리를 맛볼 수 없음을 말씀한다. 그렇게 우리 인생이 견딜 것을 견디어야 진정으로 빛난 삶일 텐데... 그 견디는 일이 아니 하나씩 잃어가는 일이 너무 아파서 아직도 꼭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무수히 많은 것 같다. 그 잃어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성숙이요 더 영글어가는 것일 텐데 말이다.

그렇게 하나씩 잃어가다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때, 그래서 사방을 둘러보아도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야말로 죽은 듯이 자다가도 벌떡 눈을 뜨면 생각나는 것이 내 가슴에 찌자버린 주님의 사랑이 아닐까. 그 절절한 사랑 때문에 우린 오늘도 하나씩 잃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아픔과 맞서서 아픔을 통한 승리를 맛보며 담대히 일어설 수 있으리라.

그렇다. 영성은 모든 것을 하나로 관통하는 힘이 있다. 그렇게 주님의 세계는 일원화된 삶을 사는 것이리라.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잃어버린 ‘좋은 나뭇의 세계’가 아니라 어떤 고통 속에서도 ‘좋은’만 있는 세계... 그 세계 속에서 삶을 누리며 사는 게 필경은 하나님나라의 삶이 아닐까? 그래서 건강한 것은 물론 좋지만 아픈 것도 고통을 통한 승리를 맛볼 수 있어서 좋고...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 그렇게 ‘나쁨’이 없는 세계 속으로 나를 밀어 넣고 살다 보면 감히 내가 기대하지 않는 삶을 만나리라. 그리고 내 인생도 조금씩 그렇게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고마워하는 좋은 이웃이 되어 가리라.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자신의 가진 것을 서서히 버리는 나무들을 보면서 자신을 비우고 조건 없이 사랑하면 몸은 지쳐도 마음은 기쁠 텐데... 늘 계산되고 이기적인 마음이 동반된 사랑이라 사랑하는 일이 그렇게도 힘든 것 같다. 굳이 사랑이라는 말이 범람하지 않아도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알락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말없는 진짜 사랑이 그냥 우리 속에서 베어 나왔으면 좋겠다. 숨을 쉴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사랑인데 서로가 얼마나 사랑하고 싶든지 또 사랑을 받고 싶든지 알아주는 치유가 각자의 선 자리에서 혼신을 다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픔을 통한 승리로 우뚝 서게 되길 바램해 본다.

changsamo1020@gmail.com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동부(NY, NJ)교회

<p><b>뉴욕몽양장로교회</b>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수요예배: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 (718)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p>	<p><b>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b>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 화,토 Tel: (718)265-2584, www.f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p><b>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p><b>뉴욕새별장로교회</b>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 (917)733-7387, chungkita@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p>	<p><b>뉴욕새생명장로교회</b>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I, Flushing, NY 11358</p>	<p><b>뉴욕새사람교회</b>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영 아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3108), (917)373-3411 46-40 162 St, Flushing, NY 11358</p>
<p><b>뉴욕센트럴교회</b>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30(월-토) www.pcpcny.org, Tel: (516)387-8940, 8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p><b>뉴저지성도교회</b>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p><b>리빙스톤교회</b>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영아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p><b>빛과소금교회</b>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45분 주일학교 오후 1:45분 찬양예배 오후 3: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토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30 Tel: (347)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p><b>주비전교회</b>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중보기도: 오후 8:30 영아예배: 오후 1:00 Tel: (718)787-8999, bonhee@hotmail.com 70 Plandoma Rd, Manhasset, NY 11030</p>	<p><b>퀸즈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1>하와이 및 북미 지역</h1>					





목회서신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성탄의 계절에 생각나는 특별한 추억들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기억 속에 살아 있는 그 사람의 추억들이 그 사람의 양식이 될 듯 합니다. 영혼의 양식 말입니다. 그러나 그 추억도 아름다운 추억이거나 행복한 추억이어야지 아프고 힘들고 부끄러운 추억이라면 양식이 되기보다는 독약이 될 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지혜롭게 살아가려는 모든 사람들은 추억의 교통정리를 잘 하고 추억의 청소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추

억은 쓸어 쓰레기통에 던져 버려야 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추억은 정성되게 모아 마음의 선반 위에 두고 늘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교회 중심으로 살다가 보면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복된 추억들이 만들어지고

오래 기억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탄의 계절에 만들어진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결 같은 아름다운 추억들을 가진 사람들이 “꿈속의 크리스마스”를 노래하곤 합니다.

저도 성탄절이 되면 미국 이민교회 목회를 시작하던 그때를 추억하곤 합니다. 그리고 초심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스스로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탄의 계절에 미국에 처음 왔기 때문입

니다. 1993년 12월 23일이 저의 유학을 겸한 이민목회의 시작이 된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맞이하는 서른여덟 번째 성탄절 예배와 행사들의 사건이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추억은 기쁨과 행복감을 주기도 하지만 아픔과 슬픔의 추억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제 곁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지금은 제 곁에 계시지 못하는 분들도 꽤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픈 추억을 기억하며 다시는 아픈 추억을 만들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을 하며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더욱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자고 맘을 다잡기도 합니다.

저 스스로 좋은 추억을 만들어 내 인생에 양식이 되게 하는 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아가 제게 붙여주시 수많은 소중한 이들에게도 저로 말미

암아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도록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를 사랑하시고 길러주시고 사용해주시는 내 주님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추억을 만들어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흔히 성탄의 계절에 한국에서 자란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탄절의 추억들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꿈결에 들려오던 성탄절 새벽, 새벽송 대원들이 불러주던 성탄절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읊 소재지 번두리 교회를 첫 목회하던 전도사 시절에 교회 청년들과 이 마을 저 마을 이 거리 저 거리를 길과 논밭을 지나 새벽송을 들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손과 발이 불편하여 걸음이 힘이 들었던 여자청년들이 함께 새벽송을 힘써 따라다니며 성탄의 새벽에 성탄의 주님을 찬양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탄절의 추억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이제부터 어떤 성탄의 추억을 만들어 가시려는지요? 과거는 흘러갔고 이제 우리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들의 아프고 어둡고 힘겨웠던 지난날의 아름답지 못한 추억들을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 지워버리고 아름다운 추억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지지 않으시렵니까?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나의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지난날들이 모든 아픈 추억의 죄들을 사하심 같이 지금까지 나를 아프게 한 모든 사람들의 추억을 지우고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성탄의 주님을 모시고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만들어야 할 아름다운 성탄의 추억을 만들어 갑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미주한인재단은 미주 한인 이민 제117주년 및 미주 한인의 날 제17주년 기념식 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은 후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미주한인 이민117주년...지역축제의 장으로 미주한인의 날 제17주년 기념식 일정 발표

미주한인재단 LA(회장 이병만 장로)는 지난 4일 주님의영광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주 한인 이민 117주년 및 미주 한인의 날 17주년 축하 기념행사 일정을 발표했다.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행사 당일엔 전후해 LA 시청과 카운티에서 '미주 한인의 날'을 선포하는 기념식이 열리며, 1월 12일 이전에 LA시청에서 미주한인의 날 선포식이 개최되고, 곳사마리탄병원에서 국기 게양식이 진행된다.

12일 당일에는 미주 한인의 날 감사예배를 시작으로 축하 메시지와 함께 축하 무대로 한국 주요 무형문화재 및 전문민속 전수자들, 현대음악 교수진 등 약 30여 명이 참여하는

대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저녁에 진행되는 '제17주년 미주 한인의 날' 축하 행사와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영웅인 김영옥 대령 추모행사에는 워싱턴DC 상, 하원 의원들이 참석해 축하 및 격려사를 전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준비위원회는 특별히 올해 미주 한인의 날을 한인들만의 축제를 넘어 미주 190여 다민족들과 화합하는 축제의 장으로 기획해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고 타민족과 유대감을 높이는 시간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멕시코를 비롯해 중국, 베트남, 대만, 파키스탄, 인도 등 다민족 커뮤니티 지도자들과 주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병만 회장은 “미주한인 동포사회가 보수와 진보를 넘어 한마음이 된 미주한인 이민역사를 돌아보면서 미주 땅을 개척한 우리 선조들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한인 다음 세대들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전망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미주와 남가주 지역 한인들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축제를 누리고 한인의 기상을 재고하는 시간이 되자”며 참여를 독려했다.

행사 장소를 제공하는 주님의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는 “미주한인의 날 행사에 한인커뮤니티를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한인들 모두에게 잔치가 되고 타민족까지 섬기며 선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 목사는 “특별히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한인 2세들에게는 한국인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행사준비위원장 미주장신대 이상명 총장은 “자랑스러운 미주한인의 역사를 돌아보고 축하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축제와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특별히 이번행사가 타민족들에게도 좋은 선례로 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소스 광장에서 열린 제36회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축제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제 36회...Source of the Joy 남가주밀알,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축제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가 주최한 제 36회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축

제가 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소스물 광장에서 열렸다.

〈박준호 기자〉

이종희 목사는 “비 오는 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비를 별로 맞지 않고 진행할 수 있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해주신 단체들에 감사드립니다. ‘소스 오브 더 조이’(Source of the Joy라는 이름으로 진행했다. 기쁨이 넘치는 사랑의 축제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원하드미시리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이날 축제는 잔박 전도사(GO&D교회)가 말씀을 전했다. 이어 청소년 문화사역 단체 Seeds Of Worship 팀의 흥겨운 워십댄스 공연이 있었으며 모든 장애인 참가자들이 댄스타임을 가졌다.

이어서 4명의 5분간증 시간에는 더글러스김 목사(HYM 대표), 제프김 선교사(영국), 탁영준 선교사(페루선교사), 윤수잔 선교사(코스타리카)가 선교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전했다. 채형병 목사가 인도하는 찬양

4명 5분간증 통해 선교정보 제공 CMF선교원 12월 선교사 정기예배

CMF선교원(대표 김철민 장로) 12월 선교사 정기예배가 12월 7일 오후 5시 CMF선교원 강당에서 30분 동안 찬양을 드린 후 김철민 장로의 사회로 예배를 드렸다.

김영호 선교사(예멘)가 대표기도 하고, 권혜연 사모가 특송(거룩한 밤), 김대오 선교사(우크라이나)가 설교했다.

김 선교사는 잠언 3장6절을 본문으로 ‘주님을 인정하면’이란 제목으로 “나의 나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 은혜를 눈에 보이게 뚜렷하게 보이는 현실을 체험하고 살아왔다. 모든 면에서 주님을 인정하면 주께서 우리들의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계심을 믿고 살아오게 하셨

다. 우리 주변에서 나에게 악역의 주인공이었다면 그는 나를 훈련시키고 키우는 훈련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가족이 산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셨다”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서 4명의 5분간증 시간에는 더글러스김 목사(HYM 대표), 제프김 선교사(영국), 탁영준 선교사(페루선교사), 윤수잔 선교사(코스타리카)가 선교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전했다. 채형병 목사가 인도하는 찬양



세계기독교언론연합 총회 및 신앙도서 공모전 시상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세계한인기독교언론연합 회장에 조명환 목사 신앙독후감 공모전 시상식 함께 가져

세계한인기독교언론연합회(회장 임승래 장로)와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 5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6일 오전 10시 30분 JJ그랜드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 우수상은 김장혁 목사(LA), 이다복(버지니아), 김화성(영국)이 수상했고, 장려상은 한연선(산호세), 김재윤(캐나다), 정희수(남가주 치노힐)이 수상했다.

이날 ‘내게 힘을 주는 교회’(한홍 목사 지)로 우수상을 받은 김장혁 목사(엘로힘순복음교회)는 “책을 선정할 때는 한홍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어떻게 사역을 해오셨는지 궁금해서 보게 됐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다. 상까지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김유비

지)으로 장려상을 받은 정희수 집사(인랜드교회)는 “심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 속에 있어서 나를 돌보는 시간이 필요했다”며 “내심정과 같은 책제목은 보고 바로 구했다. 이 책이 해답처럼 다가왔다. 책을 통해 주변인들을 챙기면서 나를 돌아보지 못함을 깨닫고 책을 보며 치유의 시간이 됐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 인간을 기쁘게 할 것인지를 접하고 많은 생각 속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명환 목사(크리스천워클리 발행인)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이성자 전도사(미주크리스천신문 LA지사장)가 기도하고, 박기영 목사(크리스찬투데이 편집고문)가 ‘기독교언론의 정체성을 확립하라’(출4:2, 갈1:10)’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인철

목사(서점협회 대표)가 축사했으며 서종천 목사(크리스천투데이 발행인)가 축도했다.

임승래 회장은 “6명이 선정된 이번 공모전의 특이사항은 29명의 참가자 중 영국과 캐나다 등에서 수상자가 나왔다. 또한 브라질에서 참여할 정도로 참가자들의 폭이 다양해졌다”며 “세계방방곡곡에서 사역하고 있는 회원사들을 통해 응모한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임승래 회장 사회로 열린 회무처리는 서기보고, 회계보고로 이어졌다.

임원선거에서 조명환 목사(크리스천워클리)가 새 회장으로, 부회장 임승래 장로(크리스천타임즈 발행인), 윤우경(크리스천헤럴드 총괄본부장), 서기 이성자 전도사(미주크리스천신문 LA지사장), 회계 서인실(크리스찬투데이 사장)으로 선출됐다.

조명환 목사는 “회원사들이 우리 나름대로의 정체성 지키며 자존감을 서로 올려주고 기여하며 자랑스럽게 일했으면 한다”라며 “서로 경쟁과 상생하며 세계교계에 감동 주는 협회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는 미주한인기독교언론 및 세계한인기독교언론 역사집 발간 및 한국기독교언론 및 출판협회와의 만남에 대해 논의한 후 임승래 장로 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그레임시전대 신입생 위한 추수감사오픈하우스에서 필그림 코러스팀이 특송하고있다

그레임시전대, 신입생 위한 추수감사오픈하우스

그레임시전대학교(Grace Mission University, GMU) 추수감사 오픈하우스가 11월 26

일플러튼 본교 미라클센터 1층 채플(1645 W. Valencia Dr., Fullerton)에서 오후 7시에 개

최됐다. 최규남 총장의 환영 메시지로 시작돼 터키 디너와 함께 행운번호 추첨 등 이벤트가 진행됐다. 제임스 구 교수는 학력인가, 학위과정, 학교 소개, 정부학자금 보조, 장학금소개, 통신수업 등을 안내했으며 이미션 입학담당자가 입학절차 등을 소개하고 참석한 모든 신입생들에게 입학금 면제 혜택을 제공했다.

특별순서로 학교 홍보를 위해서 구성된 GMU 필그림코러스팀의 “하나님의 은혜” 특송과 예코스 특별 순서가 있었다.

GMU는 미 연방정부 교육국이 인정하는 ABHE, TRACS, ATS의 정회원 학교로 학사학위 과정은 신학박사과정과 기독교상담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은 기독교 교육학석사, 선교학석사, 기독교상담학석사과정과 목회학석사과정이다. 박사과정은 선교학박사과정과 교차문화학 철학박사 과정이 있다.

학교 및 입학 관련 문의는 714-525-0088, admissions@gm.edu 이메일과 학교 홈페이지 gm.edu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그레임시전대학교〉



CMF 선교원12월 정기 예배를 마치고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과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기사제공: CMF>



# 동부교계 게시판



### 뉴욕목사회 이취임식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이준성 목사)는 제48회기 취임식 및 47회기 이임식이 12월 19일(목) 오전 10시 다민족교회(담임 김전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총무 마바울 목사(718-762-3247) 서기 이기웅 목사(347-850-5188)

### 청소년 겨울수련회

청소년 사역단체인 'Streamside'가 주관하고, 뉴저지교협, 뉴저지목사회, Love NJ가 후원하는 청소년 겨울수련회(Youth Wave Conference)가 "The Life"(John10:10) 주제로 12월 26일(목)부터 28일(토)까지 The Westin Princeton Hotel에서 열린다. www.youthwave.org

▲문의: (201)696-8044 P. Jung

# “지명된 자의 삶을 살라”

## 퀸즈장로교회 임직 감사예배, 총 56명 임직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임직 감사예배가 12월 8일 오후 5시 본 교회당에서 열려 장로 7명, 안수집사 18명, 권사 31명 등 총 56명이 임직했다.

김성국 목사 사회로 1부 예배는 주빌리양상블의 서곡 후 시작돼 기도 양민석 목사(뉴욕교협회장), 성경봉독 정기태 목사(동부개혁장신 동문회장), 찬양 연합찬양대, 말씀선포 문성록 목사(전 KAPC총회장), 화답송 글로리아싱어즈, 봉헌기도 허윤준 목사(동부개혁장신 학감)의 순서로 진행됐다.

문성록 목사(포코로한인장로교회)는 “지명된 자의 삶”(사 43:1-7)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본문에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른 것은 임직자들에게도 해당된다. 지명 받은 자는 첫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 믿음은 행동하게 하는 능력이다. 믿음이 삶의 원인과 이유가 돼야 한다. 둘째,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 거룩한 산제로 드리기까지의 순종이다. 셋째, 행동으로 해야 한다. 행위의 결과는 열매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진정한 행동이다. 임직자들은 스스로 작게 여겨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다.

이날 장로로 박정봉, 홍성익, 정기영, 김지현, 이정훈 그리고 영어권에서 데이비드신, 제이윤이 임직했다. 서약과 안수, 악수례, 공포, 예복착의, 임직패 수여 순서로 진행됐다.



퀸즈장로교회 임직 감사예배를 마치고 임직자들과 순서맡은 이들이 함께 기념촬영 했다.

권사 31명 중에는 2명이 영어회중(제니훤, 마가렛유)에서 임직했다. 이날 김인환 목사(전 총신대 총장)는 ①하나님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 ②성도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라 ③소망 중에 즐겁게 사역하라 ④목사와 좋은 팀워크를 이루라 ⑤성도들과 화목하라 5가지로 권면했다.

조문휘 목사(KAPC부총회장)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소개하며 “말씀 순종, 감사하며 살라, 화목케 하는 자로 살라, 전도하라, 교회를 사랑하라” 등의 권면을 했다.

임영수 목사(전 영락교회 담임)는 “퀸즈장로교회가 다민족 교회의 가능성을 보았다”며 “민족의 장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계선교를 위해 성숙한 일꾼이 된 것을 축하한다”고 축사했다.

이날 임직예배는 흥준식 목사(KAPC 뉴욕노회장) 축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뉴욕센터교회에서 공연한 '메시아' 음악회의 수익금을 전달하고 있다.

# 올해도 자선단체 2곳에 수익금 전달

## 뉴욕센터교회 헨델의 '메시아' 음악회

뉴욕센터교회(담임 김재열 목사) 메시아 음악회가 8일 오후 4시 뉴욕센터교회에서 열렸다. 동 교회는 헨델의 '메시아' 공연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나눔의 사랑을 전한다.

김재열 목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 손을 붙잡고 오선지 위에서 춤을 추셨다고 고백할 만큼 헨델은 철저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했다”며, “메시아곡은 초연 때부터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을 위한 자선 음악회로 시작했다. 이번 연주회도 지난 9회 연주회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이들을 돕는 두 단체(Restore NYC, For Hope International Iiti)와 월드웨스트베리 가든에 음악회 수익금을 전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공연을 성가대 70여명과 오케스트라 30여명 등 100여명이 출연하고, 독창자는 소프라노 애шли 벨(Ashley Bell), 메조소프라노 박영경(Gloria Park), 테너 마이클 세인트 피터(Michael St. Peter), 바리톤 마이클 난셀(Michael Nansel) 등. 독창자와 성가대는 1부(예언과 탄생), 2부(수난과 속죄), 3부(부활과 영생)를 연주했다.

매 곡마다 관련 영상을 함께 띄워 2시간 넘게 이어지는 '메시아' 연주를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게 했다.

한편 14일 오후 8시에는 SUNY 퍼체이스 칼리지 퍼포밍 아트센터(735 Anderson Hill Rd, Purchase, 입장료 25달러)에서 열린다. <정리: 유원정 기자>

관객국 장로가 지휘하는 이

이날 장로로 박정봉, 홍성익, 정기영, 김지현, 이정훈 그리고 영어권에서 데이비드신, 제이윤이 임직했다. 서약과 안수, 악수례, 공포, 예복착의, 임직패 수여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김인환 목사(전 총신대 총장)는 ①하나님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 ②성도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라 ③소망 중에 즐겁게 사역하라 ④목사와 좋은 팀워크를 이루라 ⑤성도들과 화목하라 5가지로 권면했다.

조문휘 목사(KAPC부총회장)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소개하며 “말씀 순종, 감사하며 살라, 화목케 하는 자로 살라, 전도하라, 교회를 사랑하라” 등의 권면을 했다.

임영수 목사(전 영락교회 담임)는 “퀸즈장로교회가 다민족 교회의 가능성을 보았다”며 “민족의 장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계선교를 위해 성숙한 일꾼이 된 것을 축하한다”고 축사했다.



국제장애인선교회 행사를 마치고 수상자들과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 했다.

# 대통령 봉사상 금상 17명 시상

## 국제장애인선교회 2019 우리서로잡은손 행사

국제장애인선교회가 29주년을 맞아 2019 우리서로잡은손 행사를 12월 5일 오전 11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17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대통령 봉사상 금메달을 받았다.

회장 노기승 목사는 개회에서 “유엔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마태복음 20장 28-29절을 소개하고 “이 땅에 섬기려 오신 예수님처럼 국제장애인선교회가 섬김과 희생으로 예수님을 따라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무이사 임선숙 사모는 “지난 15년간 대통령 봉사상 수상 시간을 갖지 못했다”며 “이번 수상자들은 3000시간 이상 봉사를 해온 분들로, 이 분들이 없으면 선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 그들의 결심이 머는 곳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머무는 곳”이라고 말했다.

임 사모는 또 “미국의 박애 정신은 자원봉사에서 시작됐으며 미국이 건강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며 “천국에서 더 영광스런 상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사장 이경원 장로는 마태복음 25장 34-40절을 봉독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어야 한다”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힘든 곳에 바쁜 시간을 쪼개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니 우리의 상이 하늘이 있는 것임을 믿고 열심히 해왔다. 앞으로 도 지속적인 사랑과 기도를 부탁한다”고 인사했다.

이날 기도는 김명옥 목사, 축도는 박호성 목사가 했으며 2부는 음악회 순서로 진행됐다. 밀알여성선교협창단의 합창, 이주연 유영숙 이종창, 유진웅 교수 악기연주, 핸드벨 앙상블, 재즈 솔로 임채희, 트럼펫 듀엣 유요선 김준, 이아실 독창 후 밀알여성선교협창단의 합창과 경배와 찬양으로 막을 내렸다.

국제장애인선교회는 병원교회, 양로원선교, 방송선교, 해외선교, 교육과 상담 등의 사역을 하고 있다. 홈페이지 www.wohtusa.org ▲연락처: (718)353-3791 <유원정 기자>

관객국 장로가 지휘하는 이

이날 장로로 박정봉, 홍성익, 정기영, 김지현, 이정훈 그리고 영어권에서 데이비드신, 제이윤이 임직했다. 서약과 안수, 악수례, 공포, 예복착의, 임직패 수여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김인환 목사(전 총신대 총장)는 ①하나님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 ②성도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라 ③소망 중에 즐겁게 사역하라 ④목사와 좋은 팀워크를 이루라 ⑤성도들과 화목하라 5가지로 권면했다.

조문휘 목사(KAPC부총회장)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소개하며 “말씀 순종, 감사하며 살라, 화목케 하는 자로 살라, 전도하라, 교회를 사랑하라” 등의 권면을 했다.

임영수 목사(전 영락교회 담임)는 “퀸즈장로교회가 다민족 교회의 가능성을 보았다”며 “민족의 장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계선교를 위해 성숙한 일꾼이 된 것을 축하한다”고 축사했다.

이날 임직예배는 흥준식 목사(KAPC 뉴욕노회장) 축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 임원 및 1년 행사계획 발표

## 제 48회기 뉴욕목사회 이취임식 앞서 기자회견

제 48회기 뉴욕목사회가 이취임식에서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원 발표와 함께 1년간 행사계획을 알렸다.

12월 6일 정오 금강산 식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장 이준성 목사는 “뉴욕교계가 혼란의 연속”이라며 “48회기에는 기획위원회와 법규위원회를 보강해 기획위원회(위원장 이재덕 목사)는 임원단과 함께 목사회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또 법규위원회(위원장 유상열 목사)는 내년 8월 임시총회에 내놓을 헌법개정안을 준비하게 된다. 시행세칙 뿐 아니라 모범도 누리라도 수긍할 수 있는 법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 이준성 목사

△부회장 김진화 목사 외 △총무 마바울 목사 △서기 이기웅 목사 △회계 박도보라 목사 △수석협동총무 박시훈 목사, 김희숙 목사.

또한 48회기 월별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12월: 이취임예배 △2020년 1월: 23일 신년기도회, 묘지구입 운동(중앙장외사와 동역) △2월: 금식성회 △3월: 16-18일 회개금식성회(한국에서 150명 참석) △4월: 부활절 음악회 △5월: 선교지 탐사(4박5일, 쿠바 예정) △6월: 구속사 세미나 △7월: 말씀 세미나 △8월: 임시총회 △9월 구약일독학교, 야유회 △10월 2차 임실행위 소집, 선관위 발족 △11월: 창조과학탐사, 정기총회. <유원정 기자>

이날 김인환 목사(전 총신대 총장)는 ①하나님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 ②성도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라 ③소망 중에 즐겁게 사역하라 ④목사와 좋은 팀워크를 이루라 ⑤성도들과 화목하라 5가지로 권면했다.

조문휘 목사(KAPC부총회장)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소개하며 “말씀 순종, 감사하며 살라, 화목케 하는 자로 살라, 전도하라, 교회를 사랑하라” 등의 권면을 했다.

임영수 목사(전 영락교회 담임)는 “퀸즈장로교회가 다민족 교회의 가능성을 보았다”며 “민족의 장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계선교를 위해 성숙한 일꾼이 된 것을 축하한다”고 축사했다.

이날 임직예배는 흥준식 목사(KAPC 뉴욕노회장) 축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이날 김인환 목사(전 총신대 총장)는 ①하나님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 ②성도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라 ③소망 중에 즐겁게 사역하라 ④목사와 좋은 팀워크를 이루라 ⑤성도들과 화목하라 5가지로 권면했다.

조문휘 목사(KAPC부총회장)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소개하며 “말씀 순종, 감사하며 살라, 화목케 하는 자로 살라, 전도하라, 교회를 사랑하라” 등의 권면을 했다.

임영수 목사(전 영락교회 담임)는 “퀸즈장로교회가 다민족 교회의 가능성을 보았다”며 “민족의 장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계선교를 위해 성숙한 일꾼이 된 것을 축하한다”고 축사했다.

이날 임직예배는 흥준식 목사(KAPC 뉴욕노회장) 축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이날 김인환 목사(전 총신대 총장)는 ①하나님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 ②성도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라 ③소망 중에 즐겁게 사역하라 ④목사와 좋은 팀워크를 이루라 ⑤성도들과 화목하라 5가지로 권면했다.

조문휘 목사(KAPC부총회장)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소개하며 “말씀 순종, 감사하며 살라, 화목케 하는 자로 살라, 전도하라, 교회를 사랑하라” 등의 권면을 했다.

임영수 목사(전 영락교회 담임)는 “퀸즈장로교회가 다민족 교회의 가능성을 보았다”며 “민족의 장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계선교를 위해 성숙한 일꾼이 된 것을 축하한다”고 축사했다.

허연행 목사(프라미스교회)는 “다민족선교에 앞장서는 교회의 임직자 된 것, 상록수보다 더 푸르고 가슴이 뜨거운 김성국 담임목사를 모시게 된 것, 2020년 창교도 400주년의 시점에서 임직자 된 것을 축하한다”며 “달아서 없어지기까지 잘 달려가기를” 축사했다.

축송과 헌신찬송, 기념품 증정이 있었으며, 박정봉 장로가 답사했다.

박 장로는 “믿음의 선전들이 지켜온 신앙 유산을 지키도록 경주를 다하며 배우기를 힘쓰며 목사님과 사역에 협력하겠다”며 “안으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밖으로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시도록 주님의 삶을 본받아 정치기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기도와 격려를 부탁했다.

이날 임직예배는 흥준식 목사(KAPC 뉴욕노회장) 축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제 48회기 뉴욕목사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임원 및 행사계획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박시훈 수석협동총무, 마바울 총무, 이준성 회장, 이기웅 서기, 박도보라 회계, 김희숙 수석협동총무.

# 선관위 특정후보 겨냥 행위 잘못

## 뉴욕교협 부회장 후보탈락 김영환 목사 기자회견

뉴욕교협 제 46회기 부회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서류미비로 탈락된 김영환 목사(뉴욕호성침례교회)가 12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교협선관위가 자신을 탈락시키기 위해 잘못된 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오후 3시 뉴욕에은교회(담임 김명옥 목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영환 목사는 “지난 20년간 뉴욕교계를 섬기면서 많은 일들을 했다”면서, 46회기 총회를 즈음해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며 배부한 용지에는 '1. 교협 헌법 25조 7항에는 동일교단 출마후보 3년 제한법이 있다 2. 선관위가 특정 임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제목 하에 자세한 설명을 했다.

부회장 단일후보였던 문석호 목사(뉴욕호신장로교회)는 총회 수일 전 출마를 포기했으며, 부회장 선출 없이 치러졌던 46회기는 양민석 목사의 취임식 후 부회장선거를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했다.

김영환 목사는 “한 달만에 재출마는 교단안배를 위한 3년 제한법을 어기는 불법이며, 회

와 △부회장 김진화 목사 외 △총무 마바울 목사 △서기 이기웅 목사 △회계 박도보라 목사 △수석협동총무 박시훈 목사, 김희숙 목사.

또한 48회기 월별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12월: 이취임예배 △2020년 1월: 23일 신년기도회, 묘지구입 운동(중앙장외사와 동역) △2월: 금식성회 △3월: 16-18일 회개금식성회(한국에서 150명 참석) △4월: 부활절 음악회 △5월: 선교지 탐사(4박5일, 쿠바 예정) △6월: 구속사 세미나 △7월: 말씀 세미나 △8월: 임시총회 △9월 구약일독학교, 야유회 △10월 2차 임실행위 소집, 선관위 발족 △11월: 창조과학탐사, 정기총회. <유원정 기자>

이날 김인환 목사(전 총신대 총장)는 ①하나님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 ②성도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라 ③소망 중에 즐겁게 사역하라 ④목사와 좋은 팀워크를 이루라 ⑤성도들과 화목하라 5가지로 권면했다.

조문휘 목사(KAPC부총회장)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소개하며 “말씀 순종, 감사하며 살라, 화목케 하는 자로 살라, 전도하라, 교회를 사랑하라” 등의 권면을 했다.

임영수 목사(전 영락교회 담임)는 “퀸즈장로교회가 다민족 교회의 가능성을 보았다”며 “민족의 장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계선교를 위해 성숙한 일꾼이 된 것을 축하한다”고 축사했다.

이날 임직예배는 흥준식 목사(KAPC 뉴욕노회장) 축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이날 김인환 목사(전 총신대 총장)는 ①하나님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 ②성도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라 ③소망 중에 즐겁게 사역하라 ④목사와 좋은 팀워크를 이루라 ⑤성도들과 화목하라 5가지로 권면했다.

조문휘 목사(KAPC부총회장)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소개하며 “말씀 순종, 감사하며 살라, 화목케 하는 자로 살라, 전도하라, 교회를 사랑하라” 등의 권면을 했다.

임영수 목사(전 영락교회 담임)는 “퀸즈장로교회가 다민족 교회의 가능성을 보았다”며 “민족의 장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계선교를 위해 성숙한 일꾼이 된 것을 축하한다”고 축사했다.

이날 임직예배는 흥준식 목사(KAPC 뉴욕노회장) 축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이날 김인환 목사(전 총신대 총장)는 ①하나님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 ②성도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라 ③소망 중에 즐겁게 사역하라 ④목사와 좋은 팀워크를 이루라 ⑤성도들과 화목하라 5가지로 권면했다.

조문휘 목사(KAPC부총회장)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소개하며 “말씀 순종, 감사하며 살라, 화목케 하는 자로 살라, 전도하라, 교회를 사랑하라” 등의 권면을 했다.

임영수 목사(전 영락교회 담임)는 “퀸즈장로교회가 다민족 교회의 가능성을 보았다”며 “민족의 장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계선교를 위해 성숙한 일꾼이 된 것을 축하한다”고 축사했다.

이날 임직예배는 흥준식 목사(KAPC 뉴욕노회장) 축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이날 김인환 목사(전 총신대 총장)는 ①하나님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 ②성도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라 ③소망 중에 즐겁게 사역하라 ④목사와 좋은 팀워크를 이루라 ⑤성도들과 화목하라 5가지로 권면했다.

# “남자와 여자 외 다른 성은 없다”

## 뉴욕교협 청소년센터 주최 성정체성 세미나

뉴욕교협 청소년센터(대표 황영송 목사)가 주최한 성정체성 세미나가 12월 1일 오후 5시 뉴욕영락교회(담임 최호섭 목사)에서 청소년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성경에 비추어 본 성정체성'을 주제로 개최됐다.

박세웅 교수(코넬의대)와 정서영 디렉터(Womankind커뮤니티프로그램) 등이 강사로 초청됐다.

박세웅 교수는 “생물학적으로 남자, 여자 이외에 다른 성이 존재할까?”라고 묻고 “염색체에 Y가 있으면 남성(XY)이고, 없으면 여성(XX)이다. 생물학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남자와 여자 외의 다른 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사이언스 저널과 네이처에 올 6월 발표된 논문을 보면 정상인과 동성애자 50만 명을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조사에서 결론은 게이 유전자가 없다”며 “동성애자가 되는 이유는 환경적 요소나 다른 요인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성경적으로도 남자와 여자 외의 다른 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의 질문들이 이어졌다. 여성이지만 남성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 반대로 남성이지만 여성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 자녀들

이 성정체성으로 고민할 수 있다.

박 교수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것은 잠깐이며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혹시 유전자에 문제로 남아 유전자는 XY이고 여자는 XX인데, XXY는 남자이지만 여성성이 강하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1천명 중 한 명으로 치료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성정체성 고민을 초래하는 환경적 요소나 다른 요인에 대해 설명하며 “그래서 반대 성 경향이 나오는 남자들이들에게는 운동을 시켜 남성 호르몬이 더 나오도록 돕고, 여자아이에게는 여성성이 드러나는 활동을 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고쳐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반대 성이 강해진다”고 설명했다.

박세웅 교수는 “자신의 성정체성 고민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다. 교회의 교사나 선배들이면 좋다”고 조언했다.

성 정체성 세미나 주최를 주도한 청소년센터 이사 최호섭 목사는 “교회가 선교적 측면에서 동성애자에게 접근하지(미전도종족)”며 마무리 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청소년센터 주최 성정체성 세미나가 학부모들의 호응 가운데 열렸다. 왼쪽부터 최호섭 목사, 강사 박세웅 교수, 시무총장





남가주한인목사회 제53대 회장단 이취임식에서 신임 이장인 이정현 회장이 김관진 이임회장으로 부터 목사회기를 이양받고 있다

### 이정현 회장, 언론사대표로 처음 남가주한인목사회 제53대 회장단 이취임식

남가주한인목사회 제53대 회장단 이취임식이 8일 오후 4시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열렸다. 이정현 회장은 "언론사 대표로는 최초로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으로 선출됐는데 회장 임기동안 남가주한인목사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올바르게 공정하게 목사회를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MU중장년회 찬양인도와 김중용 부회장 사회로 열린 이취임식은 정갑식 부회장이 기도했으며, 민길 회장(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 성경봉독 했다.

이어 남가주목사장로부부합창단(지휘 김철이 목사)가 특별찬양 했으며 김영관 목사(세계제자훈련선교회 대표)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행1:8)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임식은 김관진 목사가, 취임식은 이정현 목사가 했으며 목사회기를 이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이임한 김관진 목사에게 공로패 증정, 신임 이정현 회장과 권귀호 이사장에게 취임패 증정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이태환 목사(남가주원로목사회 증경회장)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홀러튼장로교회 노진걸목사 원로추대 및 황인철담임목사 취임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 노진걸 원로목사 추대, 황인철 담임목사 취임 45년 전 설립 홀러튼장로교회, 3대 담임 맞아

홀러튼장로교회는 12월 8일 오후 4시 노진걸 목사 원로목사 추대 및 황인철 담임목사 취임식을 가졌다. 1부 감사예배 2부 원로목사 추대식 3부 담임목사 취임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웅장영 목사(서중노회 노회장)가 집례를 맡았다. 1부 예배는 오경탁 목사(남부시찰장) 기도예배 이어 서정운 목사(장신대 명예총장)가 말씀을 전했다. 서 목사는 '신실한 목사'(딤후2:15)란 제목으로 "목사는 항상 복의 말씀을 바로 알고 가르치고 선포해야 하며 성품과 삶, 사역에 있어 매사의 모본이 돼야한다"고 말하며 "40년 동안 홀러튼교회를 이끌어 온 노진걸 목사는 신실하고 단정했다. 부끄럼 없는 일꾼으로 사역하려고 노력해온 목사"라고 치하하며 새롭게 취임하는 황인철 목사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이어 진행된 원로목사 추대식에서 황치훈 장로가 추대식을 낭독했으며 심상래 목사(중노회장)가 기도하고 노진걸 목사가 원로목사로 추대됨을 선포했다. 노진걸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40년 동안 이 교회 밖에 모

르고 살았다. 출타하지 않은 한 교회에 나와 섬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류수열 목사(노회 부서기)가 황인철 목사를 소개함으로 시작된 취임식은 목사와 교우들의 서약이 있는 후, 배선용 목사(노회 부노회장)가 기도하고 홀러튼장로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했음을 선포했다. 이어 노회에서 기념패를 증정한 뒤 강영창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본 행사를 위해 KPCA 총회장 이기성 목사는 영상을 통해 "앞으로 더욱 성숙한 교회가 돼 교단을 빛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축복된 교회가 되기 바란다"고 축사했다. 본 교회는 1974년 최영빈 목사를 중심으로 12명이 성도들이 산타아나장로교회로 설립됐다. 노진걸 목사는 1980년 전도사로 부임해 사역하다 1982년 2대 담임목사로 취임, 교회를 섬겨왔다. 황인철 목사는 토렌스제일장로교회와, 뉴욕 아름다운교회에서 28년 간 담임목사로 섬기다가 지난 10월부터 홀러튼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다. <이성자 기자>

### 제7회 라크마 '크리스마스 패밀리 나잇'

락마(LAKMA)합창단과 오케스트라(단장 최승호·음악감독 윤임상)가 주최하는 제7회 크리스마스 패밀리나잇 콘서트가 8일 오후 7시 한길교회에서 개최됐다. 최승호 단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콘서트는 1부 헨델의 메시아를 통해 주님의 통치와 영광 능력을 선포했으며 2부 순서를 통해 이미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이현정(1등), 전수경(2등), 박선우(3등) 음악전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락마는 2012년 창단돼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음악회의 수익금을 후원하는 음악 전문단체로 지난 8월에는 디즈니홀에서 주시아메리칸 음악인들과 '한국의 혼'을 협연하여 수준 높은 한국의 음악을 전 세계에 알렸으며 내년에는 아프리카아메리칸 음악인들과의 협연을 계획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LAKMAinfo@gmail.com이나 (323)327-2227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 8개 교회 참여, 하모니 이뤄 LA동부교협 주최 2019 성탄찬양제

LA동부교역자협의회(회장 신용환 목사)가 주최한 성탄찬양제가 7일 오후 5시 나성한미교회(담임 신용환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찬양제는 나성한미교회, 좋은비전교회, 아름다운교회, 글로벌선교교회, 남가주주님의교회, 유니온교회, 선한청지기교회, 선한목자교회 등 8개 교회가 참가해 아름다운 찬양의 하모니를 선사했다. 신용환 목사 환영인사로 시작된 찬양제는 최준우 목사(좋은비전교회/동부교협 부회장)가 기도했으며 신용환 목사가 '조용한 임재와 큰 기쁨'(눅 2:9-14)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날 찬양제는 LA지역 신학교를 후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풀러신학교, 미주장신대학교, 웰드미션대학교, 디아스포라연구소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찬양제는 김낙인 목사(남가주주님의교회)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이날 찬양제는 나성한미교회, 좋은비전교회, 아름다운교회, 글로벌선교교회, 남가주주님의교회, 유니온교회, 선한청지기교회, 선한목자교회 등 8개 교회가 참가해 아름다운 찬양의 하모니를 선사했다. 신용환 목사 환영인사로 시작된 찬양제는 최준우 목사(좋은비전교회/동부교협 부회장)가 기도했으며 신용환 목사가 '조용한 임재와 큰 기쁨'(눅 2:9-14)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날 찬양제는 LA지역 신학교를 후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풀러신학교, 미주장신대학교, 웰드미션대학교, 디아스포라연구소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찬양제는 김낙인 목사(남가주주님의교회)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LA동부교협 주최 성탄찬양제에서 남가주주님의교회 찬양대가 찬양하고 있다



차성구목사가 사모와 함께 취임서약을 하고 있다

### "성도들에게 영적 양식 많이 먹이겠다" 여성제일교회 차성구 담임목사 취임예배

여성제일교회 차성구 담임목사 취임예배가 8일 오후 4시 은혜가운데 드러졌다. 김병학 목사(주님의교회 담임)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갈오한 목사(예수시사람들교회 담임) 기도, 박희민 목사(새생명선교회 대표)의 설교로 진행됐다. 박 목사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공동체'(잠25:13)란 제목으로 "충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데 충성된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이고 신실 되게 살아가는 것이며 죽음을 무릅쓰고 사명을 감수한 충성된 자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며 충성된 주의 일꾼이 되기를 당부했다. 이어 취임식을 통해 목사와 성도의 서약이 있는 후 취임을 선포했다. 이날 권면은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 이선영 목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키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온 차성구 목

사다. 아블로와 브리스길라처럼 성도들은 목사님의 동역자가 돼 교회를 이끌어가기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어 조인 목사는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목사와 성도들이 되기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담임목사로 취임한 차성구 목사는 "담임목사로 취임하게 됨을 감사한다. 목사로서 내 배가 고프지 않도록 많은 영적 양식을 먹고 성도들에게도 많은 양식을 나누며 교회의 부흥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를 당부했다. 차성구 목사는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과 Liberty Theological Seminary(Th.M), Calvin Theological Seminary(Th.M)를 졸업하고 남가주사람의교회 교구 및 영성개발원/제자훈련 담당목사와 워싱턴제일장로교회에서 사역했다. <이성자 기자>



2019 사랑, 하나님의 선물 송년 음악회에서 전출연자들이 함께 찬양하고있다



락마 크리스마스 패밀리나잇 연주회에서 헨델의 메시아를 들려주고 있는 단원들.

## 서부교계 게시판

### 제 34회 은혜성가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는 제 34회 은혜성가제를 15일(주일) 오후 2시30분 개최한다. 매년 '주님의 기쁨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표어 아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열리는 성가제는 은혜한인교회 안에 조직된 28개 그룹, English Ministry 그리고 교역자, 교직원 팀이 참가한다. ▲문의: (714)446-1000

인랜드지역 교회연합 성탄예배  
인랜드교역자협의회(회장 이희철 목사)는 인랜드지역 교회연합 성탄예배를 15일(주일) 오후 3시30분 인랜드 ANC온누리교회(담임 조강왕 목사)에서 갖는다. ▲문의: (909)945-9191

사역자 모집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담임 남성수 목사)는 사역자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전임 부목사(정규신학대학원 졸업자), 반주자(피아노 전공자)이며 지원자격은 부목사는 교구, 전도, 소그룹, 찬양, 청년, 미디어 사역 유경험자이며 반주자는 합창단 반주 및 주일예배 반주 유경험자로서 미국내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접수마감은 12월 14일(당일도착)이며 모든 지원서류는 이메일(kccoffice2@gmail.com)로만 받는다. ▲문의: (714)893-1652

GMU 해외현지 신학교육 장학금 후원  
그레이스미션대학교(Grace Mission University, GMU)와 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는 해외 있는 현지 사역자들에 대한 신학교육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이벤트를 마련한다. 이번 행사는 과테말라 현지 신학생들이 GMU의 앞선 교육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장학금 후원을 하기 위한 행사다.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의 도네이션 홈페이지(<http://churchhomepage.org/ICMM/donation/>)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장학금 후원 신청 (GMU Overseas Theological Education Scholarship Donation Application)이 가능하다. ▲문의: (714)525-0088, 393-4595



한인가정상담소가 주최한 위탁아동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

### 한인가정상담소 위탁아동위한 크리스마스파티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조)는 '위탁가정 아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개최했다. 7일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에토스소사이어티 코리 아타운에서 열린 행사에는 위탁가정에 머물고 있는 위탁아동들은 물론 이들을 돌보는 위탁가족 70여명이 참석했다. 한인가정상담소의 강호선 이사장이 직접 산타클로스가 돼 아이들과 사진을 찍고 선물을 나눠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한 페이스 페인팅이나 풍선아트, 타투 부스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한인가정상담소는 2014년부터 LA카운티 내 위탁가정 아이들을 위한 '동지찾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미국 내 유일한 아시아전문 위탁가정에 이전시(Foster Family Agency·FFA)로 활동하고 있다. LA카운티에는 친부모의 학대나 방치, 폭력 등으로 아동보호국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이들이 약 3만4000여명이며, 이중 아시아인은 600-800여명, 한국 아이들은 60-100명 정도다. ▲문의: 213-235-4848.

### 5개팀 비전시각장애인센터 후원 2019 사랑, 하나님의 선물 송년음악회

'2019 사랑, 하나님의 선물' 송년음악회가 8일 오후 6시30분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음악회는 비전시각장애인센터(대표 추영수 목사) 후원음악회로 열렸다. 송년음악회 이인호 준비위원장은 "한해가 마감하는 12월 다섯 팀이 힘을 모아 비전시각장애인센터를 후원하는 송년음악회를 열게 됐다"며 "오늘 음악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엄미나 아나운서(우리방송)사회와 한영 목사(대광OB코랄) 개최기도 후 시작된 송년음악회는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중 서곡, '주의 영광', '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를 위해 나셨다'.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를 감사한인교회 임마누엘성가대, 그랜드페스티벌 콰이어, 대광OB코랄, 라흠여성합창단이 연합으로 합창했다. 이어 CTS 아이드림 콰이어, 라흠여성합창단, 소프라노 정선경의 무대가 있었으며 비전시각장애인센터 회원들의 오카리나 연주와 조은별 자매의 피아노 연주가 있었다. 이어서 전 출연자들이 함께 캐롤 메들리 연합으로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음악회는 구봉주 목사 축복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 “빛과 소금의 역할, 한국교회 연합 위해 힘쓸 것”

### 한교연 9회 총회… 권태진 대표회장 연임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이 3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9회 총회를 열고 권태진 대표회장의 연임을 결의했다.

권 대표회장은 “지난 회기 대표회장으로서 한교연을 섬

기며 오히려 큰 은혜를 받았다”며 “새로운 회기에도 성경이 말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교연은 이날 제9회 총회 선언문을 발표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순교적 각오와 결단으로 대항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향해 희망을 제시하고 한국교회의 하나 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회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장(총회장 김학모 목사)

한국(총회장 김학필 목사) 총회가 신규 회원으로 가입해 회원 교단은 모두 40개가 됐다. 한교연은 다음 달 ‘사랑의 밥고’ ‘사랑의 연탄 나누기’ 등이 웃 섬김 사역을 시작으로 3·1 운동 101주년 순교유적지 순례,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예배 등 제9회기 주요 사역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졌다. 전 감독회장은 지난해 10월 첫 번째 직무 정지 후 지난 7월 다시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기감은 그동안 감독회장 직무 정지로 윤보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윤 직무대행은 지난달 18일 열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회에서 회장에 선임됐다. 만약 전 감독회장이 돌아올 경우 윤 직무대행이 NCCK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책 등을 논의하는 생명존중 프로젝트를 주요 사업으로 확정했다.

또 3040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가칭 ‘젊은 목회자 100인 포럼’을 개최해 한국교회 미래 목회에 대한 준비와 연합 정신을 확산하기로 했다.

지난 3-7월 회원 교단에서 진행한 국가인권기본계획(NAP) 독소조항 반대 서명에는 총 110만379명이 동참했다고 보고했다. 한교총은 동성혼 법제화 반대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적지향(동성애)을 인권에 포함해 보호하는 법 제정 반대 입장을 청와대 국외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과 전도와 선교하는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재미재단법인 한부협을 창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부협에는 21C영성운동본부를 비롯 개신계총연합, 기독교기도운동본부, 나라사랑국민연합,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총회(한영) 부흥사회, 예장 총회(합동) 부흥사회, 무지개개신교회, 남포월드협의회, 세계기독교부흥강사협의회, 워드부흥사협의회, 세계복음화협의회, 한국기독교영성회, 한민족복음화부흥사회, 한민족복음화선교부흥사협의회, 한반도복음화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부협은 창립취지문에서 “지금의 시대적으로 영성과 부흥운동에 수고하시는 각 교단 부흥사회와 부흥단체가 융합적으로 연합해 일할 때”라며 “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기감 본부 관계자는 3일 “소송 전체를 취하하는 서류를 제출한 게 아니고 상고 취하서만 제출한 건 맞다”면서 “변호사들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소 취하 과정에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두 차례나 직무 정지 됐던 감독회장이 복귀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기감 내부와 연합기관들의 혼란도 불가피해

일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교총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처럼 교단 총회장을 지낸 파송 이사 중에서 직접선거를 통해 대표회장을 뽑지 않고 회원 교단의 현직 총회장이 대표직을 자동승계하는 구조다. 따라서 금권선거나 흑색비방전, 과잉선거 등이 없다.

이날 총대들은 한교총 법인 주무 기관을 서울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하기로 했으며, 11억6670여만원의 예산을 승인했다. 대한민국 수립에 정신적 자산이 된 기독교 문화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가칭 ‘근대문화유산보전법’ 제정, 낙태 반대 및 저출산, 동성애 대

교에서 “부흥사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산과 복음 전파에 힘을 모아야한다. 한부협의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한영대 총장 한영훈 목사를 중앙회장에, 오병열 안양성신교회 목사를 중앙본부장에 선출했다.

이 단체 서기는 최선 목사이다. 회원 단체장들은 공동대표회장 겸 정책위원회에 각각 임명을 내기로 했다.

한부협은 창립취지문에서 “지금의 시대적으로 영성과 부흥운동에 수고하시는 각 교단 부흥사회와 부흥단체가 융합적으로 연합해 일할 때”라며 “

## 전명구 감독회장 관련 소송취하 싸고 혼란

### 기감관계자 “대법계류 상고 취하서만 제출” 등 해석 분분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이 2일 모두 취하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던 전명구 감독회장이 복귀할 가능성이 열렸다. 피고인 기감과 보조참가인인 전 감독회장도 법원에 취하 동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두 명의 원고가 대법

원에 계류돼 있는 소송에 대해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고등법원 판결을 인정하는 결과가 됐다는 상반된 법률 자문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전 감독회장과 기감이 상고를 포기하고 2심 결과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되면 전 감독회장 복귀는 불가능해진다. 기감은

## 새 대표회장에 김태영·류정호·문수석 총회장

### 한교총 3회 정기총회 열고 대표회장단 선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3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 대표회장을 선출했다.

신임 대표회장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김태영,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류정호, 예장합신 문수석 총회장이 선출됐다. 김 대표회장은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장로교공의회, 감리교공의회 등 연합 사업을 펼쳐왔다”면서 “신앙 선조의 연합 사업처럼 세속화 시대의 교단 연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교총이 사회와 교회의 가교 역할을 하며 민족의 등대가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약속했다.

류 대표회장도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연합 정신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화가 이뤄지고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문 대표회장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 되고 주님이 명령하신

## “대정부·사회문제 목소리 낼 것”

### 부흥사 연합단체 ‘한부총’ 출범,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한국기독교부흥사단체총연합(한부총)은 6일 오전 서울 구로구 경인로 서울한영대학교 대학본부 7층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한부총은 창립취지문에서 “지금의 시대적으로 영성과 부흥운동에 수고하는 각 교단 부흥사회와 부흥단체가 융합적으로 연합해 일할 때”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과 전도, 선교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재미 재단법인 한부총을 창립하게 됐

다”고 밝혔다.

한부총은 국내외 성(聖) 사업 교류, 영성운동과 대가성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교회부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해외 교회 선교사역을 돕는다. 대정부와 대사회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피종진 남서울중앙교회 원로목사를 대표총재에 추대했다.

피 목사는 이날 ‘한 몸과 한 지체’(롬12:4-5)란 제목의 설

교에서 “부흥사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산과 복음 전파에 힘을 모아야한다. 한부협의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아닌 조국 통일이다. 저자는 북한 내 교회의 특색을 열거하며 효과적인 북한 선교를 위한 제언을 전한다.

‘사막의 지혜: 로완 윌리엄스의 사막 교부 읽기’(비아)는 신학자이자 성공회 신부로 캔터베리 대주교를 지낸 저자가 본 3세기 사막 수도사의 ‘사막 영성’을 전하는 책이다. 책은 사막 수도원 운동이 은둔과 금욕을 강조한다는 통념을 뒤집는다. 저자는 “사막 수도 생활의 핵심은 ‘교회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와 ‘그리스도인이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지’에 있다”며 그 근거로 사막 수도자의 금언과 일화 등을 제시한다. 21세기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참고할 만한 지점이 적지 않게 담긴 책이다.

학술부문 종교 분야의 기독교 서적은 “그리스도론의 역사: 고대 교부에서 현대 신학자까지”(대한기독교서회)와 ‘구약주석 어떻게 할 것인가?: 구약 본문의 이해와 주석을 위한 길잡이’ ‘초기 교회의 기원(상·하)’(새물결플러스) 3권이다.

‘그리스도론의 역사’는 김동진 영남신학대 교수가 1세기부터 현대까지 등장한 그리스도론을 망라한 ‘그리스

도론 통사’(通史)다. 저자의 ‘그리스도론 3부작’ 가운데 2번째 책으로 당대의 시대정신에 따라 달라진 그리스도론을 유형별로 정리했다. 그리스도론의 변화를 살펴본다. 저자는 “그리스도론은 어떠한 영감을 얻을 수 있다.

부산장신대 구약학 교수인 저자가 쓴 ‘구약주석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구약 본문 주석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소개한다. 세계신약학회를 역임한 영국 신약학자 제임스 던의 ‘초기 교회의 기원’은 주후 30-70년의 교회 역사를 다뤘다. 첫 기독교 공동체의 종교·사회적 특징 등을 기술하며 유대교의 종파로만 여겨진 기독교가 어떻게 이방 세계로 전파됐는지를 주목조목 설명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19 세종도서 사업은 출판 다양성 기여, 우수출판콘텐츠의 지속적 생산 환경 구축 등을 목표로 각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학술부문은 연 1회, 교양부문은 연 2회 선정된다. 선정되는 전국 공공도서관 등 2600여 곳에 보급된다.

## 신학대학원 지원자 줄고 있다

### 입학경쟁률 2대1 못 미쳐...정원 미달도

주요 신학대학원(신대원) 목회학석사(MDiv) 과정 지원자 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정원 미달도 나오기 시작했다. 신대원 측은 학령인구 감소와 목사에 대한 신뢰도 추락 등을 지원율 감소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신대원마다 정원 감축과 연구위원회 발족 등을 통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서울 광진구 장로회신학대 신대원 2020학년도 입시 경쟁률은 1.84대 1에 머물렀다. 264명 정원에 486명이 지원했다. 신대원 지원자는 2013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그해에는 300명 정원에 986명이 지원해 경쟁률 3.28대1을 기록했다.

경기도 용인 총신대 신대원은 일반전형 정원 295명에 389명이 지원해 1.3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총신대 신대원은 최근 입시 교육체계연구위원회를 발족해 지원율 감소의 근본 원인을 찾고 있다. 이경림 신대원 교무입학팀장은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만을 원인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연구위원회에서 지원율 감소 원

인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신대원 입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감리교신학대 신대원은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했다. 신대원 입학처 관계자는 “2020학년도 신대원 지원자가 정원에 못 미쳐 한두 차례 추가 모집을 해 총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감신대 신대원 지원율은 2018년 1.08대 1을 기록한 후 2019년 1.22대 1로 소폭 반등했지만, 올해는 1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기도 수원 합동신학대학원대도 올해 처음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됐다. 이 대학은 수차례 입학 설명회를 통해 지원자 확보에 나섰다. 한 관계자는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걸 절감하고 있다”면서 “목회자가 되려는 자원 자체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

신대원 목회학석사 과정은 목사 안수를 받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교육 코스다.

## “동성애 단호 반대, 성희롱 발언논란 공정조사”

### 이재서 총신대 총장 기자회견

이재서 총신대 총장이 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강의 중 성희롱 발언으로 문제 제기된 일부 교수와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지난달 18일 총신대 학생자치회가 대자보를 통해 공개한 추가 성희롱·성차별 사례에 대해 집중 해명했다.

사례 공개 후 이 교수는 자신의 강의 내용에 대해 “정당한 의학적 사실 제시를 성희롱으로 곡해했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을 지적한 대자보 게재자들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시도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안은 동성애에 대한 입장 문제로 확산됐다. 교계내동성애 단체들이 “동성애 반대자 이 모 교수를 탄압하지 말라”며 잇따라 성명을 내고 총신대 입구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 총장은 “논란의 핵심은 총

신대 내 동성애를 지지하는 어떤 세력이 이 모 교수의 발언에 대해 의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주장하며 마녀사냥식으로 해당 교수를 성희롱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이 “이 교수가 동성애 반대에 앞장 서 온 분이다 보니 교육적 의도를 갖고 발언 한 것이지 성희롱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며 “그 의도에 공감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가 됐다면 그 점은 잘 보듬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 “총신대의 회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상징적이라는 것을 논하는 것은 관찰지만 나의 신앙이나 사상, 진영까지 연결시켜 공격하는 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신대는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동성애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 성탄절 맞이 기독교공연 풍성

### 지친 마음 토닥토닥 따스한 12월

한국교회의 역사가 담긴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특별한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이 열린다. 국민일보와 베헤장학회(이사장 백도웅 목사)는 이달 두 차례의 크리스마스 콘서트와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

두 차례 콘서트는 ‘블루’와 ‘데드’ 콘셉트로 열린다. 11일 저녁 7시30분 블루 콘서트는 가장 낮은 오선 예수님처럼 우리의 시선도 크리스마스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옮겨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시작한다는 주제로 진행된다. 아코디언리스트 이자원, 기타리스트 천상혁이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를 비롯해 ‘크라이스앤위스퍼’, 크리스마스캐럴 등 다양한 크로스오버 음악으로 공연한다.

17일 같은 시간에 열리는 레드 콘서트는 라디오 공개방송 형식으로 진행된다. 가장 추운 날 따뜻한 추억을 꺼내보자는 주제로 열린다. 강은경(작곡가) 양송희(클라리넷) 이지혜(피아노) 김현경(바이올린) 박은정(소프라노) 이 찬송가 트리오 ‘아름답고 찬란한 세상’ 등 각 사연에 맞는 음악들을 선보인다.

16일 ‘어머니의 기도’ 북 콘서트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을 위한 자리다. CCM ‘요게벳의 노래’를 부른 찬양사역자 조찬미가 함께한다. 우리들교회(김양재 목사)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들 콘서트는 모두 무료다.

국민일보 관계자는 “한국교회의 지성과 문화가 품어왔던 교인자 교계 기관들이 모인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려 뜻깊다”며 “지하공간에 조성되는 복합문화공간도 미리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팝페라 듀오 ‘라보엠’과 CCM 트리오 ‘라스트’가 함께 꾸민 ‘라보트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오는 19일 저녁 7시30분 서울 흥대 인근 플렉스라운지에서 열린다. 캐럴과 CCM 등 성탄절을 맞아 기독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이 준비돼 있다. 라보엠 관계자는 “5명의 남자가 들려주는 웅장한 하모니와 개개 맨 정현수가 함께하는 기분 좋은 소용의 시간이 될 것이다. 따뜻한 캐럴과 지친 마음을 위로해줄 힐링 음악이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CCM 아티스트 송정미의 ‘송정미 콘서트 크리스마스 인 러브’는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서울 강남구 광야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광야를 걷는 사람들’이라는 부제로 외롭고 고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건네는 무대가 될 예정이다. ‘축복송’ 등 송정미의 대표곡은 물론 크리스마스캐럴과 국악 요소를 활용한 편곡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선보인다.

## 올 한 해 한국사회가 픽한 기독교서는…

### ‘2019년 세종도서’ 목록 교양·학술 부문서 기독교서 9종 선정

올 한 해 우리 사회가 ‘양서’로 주목한 기독교 서적은 필히. ‘2019년 세종도서’ 목록 속 기독교 서적을 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지난달 25일 발표된 2019 세종도서는 교양·학술부문으로 나눠 10개 분야 950종이 선정됐는데 교양부문 종교 서적 24종 가운데 기독교 서적은 9종이었다.

선정작 가운데 ‘그리스도의 길’이 있다. 코리안 바이블 루트(두란노)는 이원식 영화감독이 국내와 일본, 중국을 누비며 한글성경 전파 경로를 추적한 책이다. 우리나라는 독특하게도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다. 1885년 이 땅에 선교사로 온 연세대 설립자인 호러스 언더우드(원두우)도 이미 한글성경을 읽고 기독교인이 된 조선인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저자는 전 세계 2000여년의 선교 역사에서 전후후무한 이 사건에 주목해 한글성경이 어떻게 한반도에 번역·전파됐는지를 추적했다.

우병훈 고신대 조직신학 교수의 ‘기독교 윤리학’(복있는사람)은 철학적 윤리학과 기독교 윤리학을 비교해 기독교 윤리학의 정체성을 도출해낸 책이다. 이 둘에는 결정적 차이가 있다. 기독교 윤리학에선 윤리의 실천 동력이 인간의 도덕성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신앙에 있다. 저자는 복음이 ‘교리’와 ‘윤리’란 두 가지 언어를 가지고 있다며 기독교 신앙에 있어 삶과 실천의 균형과 조화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재미교포 저자가 쓴 책 ‘북녘의 교회를 가다: 최재영 목사의 이북 교회 제대로 보기’(동원)에서는 북한 공식 가정교회의 존재를 증언한다. 저자에 따르면 북한에는 500여곳의 가정교회가 있다. 평양신학원 졸업생이 이들 교회의 교역자로 배치된다. 당국의 눈을 피해 예배를 드리는 지하교회와는 다른 개념으로, 종교의 삼자교회와 유사한 관련 교회다. 교회의 최우선 목표도 복음 전파가







# 업스테이트뉴욕 6개 지역교회 연합 말씀사경회

## New York Bible Conference 2020년 1월 9일(목)부터 11일(토)



2019년 1월 컨퍼런스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업스테이트 뉴욕의 6개 지역교회가 연합해 개최하는 New York Bible Conference(NYBC)가 2020년 1월 9일(목)부터 11일(토)까지 White Eagle Conference Center(Hamilton, NY)에서 열린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해 올

해로 14회를 맞는 NYBC는 성경만을 가르치는 말씀 사경회다.

지역 외에도 여러 곳에서 참석하며 매년 약 230여명이 참석해 5개 세미나를 통해 성경 말씀을 배운다.

행사를 주관하는 시라큐스

한인교회 측은 2020년 1월은 성경 66권이 모두 선포되는 뜻 깊은 시간이라며, 어린이 NYBC도 같은 시간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교회가 많고, 어디서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이 세대에 정작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 적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해주는 메시지가 많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집회가 참석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도전을 주고 있다”며, “성경을 통해 깨닫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배우고 나누며 말씀을 통해 변화된 많은 개인들과 회복된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된다”고 개최 이유를 소개했다.

▲연락처: (315)474-8346 김연희 간사, 이메일: newyorkbibleconference@gmail.com

(기사제공: NYBC)

## 신코 펴지기

### 필리핀

이번 2019 FMB 필리핀 지부 총회선거에서 처음엔 만장일치로 제가 회장에 선출되었지만 아주 강력하게 사퇴를 하였습니다. 저희 사역지인 잠보앙가 도시는 한국인 여행금지구역이고 아직까지 재정이 넉넉지 못하데 회장이 되면 많은 모금을 하여 여성선교사세미나와 2020년 총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교지에서 20년 넘게 조용히 있다 보니 대부분 제가 선교지에서 자리를 잡았을 거라 생각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거든요. 우리 가정은 항상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보다 사역비가 많이 드는데 옆의 다바오 도시 같은 소속 선교사들을 지켜보면 국제학교에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비싸고 좋은 집에 살면서도 늘 재정이 부족하다고들 합니다.

다바오 도시엔 한국 선교사들이 60여 가정이 넘고 물가도 비싸고 생활환경이 좋지만 선교사들은 늘 힘들다고들 말합니다. 저희 현탁이와 준탁이처럼 현직인 학교에 보내는 분들이 거의 없기도 하고요. 한국 선교가 많이 변하고 있

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이지요. 좀 외지고 낙후되고 항공 교통이 안 좋으면 선교사들이 가길 꺼려하다 보니 주변에 관광할 아름다운 곳에 사역하는 선교사들엔 1년에도 수

새로 open 할 것이고 대학교도 많고 복음 전할 사람들도 많고 선교사들도 없고... 이렇게 좋은 선교지를 물리치고 있습니다. 단지 여행금지구역은 한국인 시민권만 포함되고 한국인을 제외한 다른 외국인들은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니니



2019 FMB 필리핀 침례교선교사 지부 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십 팀들이 단기선교를 가지만 저희 잠보앙가 지역은 24년 동안 단기선교를 단 2번만 왔습니다.

저희 지역은 한국인이 없다 보니 외롭기도 하고 아쉬울 때도 많지만 한국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서로 만나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여기 생각보다 안전하고 좋습니다. 안 좋았던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지 선교사가 사역하기에는 좋은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큰 백화점도 1개 있고 곧 있어 몇달 후에 2개가

다. 시내에 경찰과 군인도 많아 안전합니다.

한국정부가 여행금지 구역으로 선포해놓은 것일 뿐이고 우리 부부는 한국외교부의 허락을 받아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귀한 은혜를 주님이 늘 채워주십니다. 외진 20여년을 선교지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부부를 불러주셔서 감사할 뿐이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오정윤 선교사 ohgongtak@hanmail.net

## 미주 한인자살자 비율 인종별 최고 LA정신건강국 발표...2017년 3.7%, 90%가 한국출생

미주 거주 인종 중 한인이 인종·민족별로 자살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은 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LA정신건강국이 지난 2일 오전 한인 종교단체들과 함께 개최한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LA정신건강국과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료에 나타난 미국 내 한인 자살통계 분석 현황을 공개했다.

LA카운티 정신건강국의 김재원 트레이닝 코디네이터는 “미주 한인 자살율은 가장 최근 기록인 2017년 자료에 따르면 사망 100건 당 사망원인이 자살인 경우가 15개의 인종·민족 중 3.7%로 가장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CDC 자료에 따르면 사망 100건 당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계가 가장

높고 이어 아시아·태평양계 전체가 3.6%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이어 아메리카원주민(3.1%), 괌(3.0%), 기타 아태계(2.7%), 사모아계(2.3%), 인도계(2.2%), 베트남계(2.0%)의 순이었다. 이 밖에 히스패닉은 2.0%, 백인은 1.8%, 중국계는 1.7%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UCLA가 LA 카운티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라는 조항에 13%의 한인이 ‘그렇다’라고 대답했는데 이는 전체 평균인 9.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어 ‘정신/정서/약물 문제에 대한 도움을 구했는가’라는 질문에는 ‘도움이 필요했지만 치료를 받지 않음’이라고 대답한 한인이 5명 중 4명꼴이 넘는

83.2%에 달해 정신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 중 16.8%만 실제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코디네이터는 “2010년 기준 캘리포니아의 한인 자살사망자의 90%가 한국에서 태어난 이민자로 확인됐다”면서 “문화적으로 적합한 자살예방 활동과 인력, 자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인커뮤니티의 경우 정신적 치료를 받으면 사회적 낙인이 될 것을 우려하고 상담을 받고 싶어도 언어적인 문제로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정신건강국에서 한인을 위한 핫라인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은 만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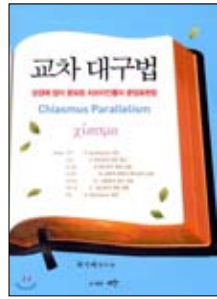
LA정신건강국 센터를 방문하게 되면 정신건강 관련 자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어 핫라인: LA카운티 정신건강국(800-854-7771), 디디허쉬 자살예방 위기전화(877-727-4747) (박준호 기자)

### 책소개

## “교차대구법”

저자 최기태 목사



최기태 목사가 ‘성경에 많이 분포된 히브리인들의 문장 표현법’이란 부제를 달고 “교차대구법”(도서출판 새한)을 출간했다.

을 준비했다”며 “보통 논자의 끝부분에 Climax로 핵심주제를 결론을 내지만 히브리인들은 특별한 사건이나 비밀스런 내용을 표현할 때 교차대구법을

### ‘성경에 많이 분포된 히브리인들의 문장표현법’ 부제 달아

일반적으로 교차대구법(Chiasmus)이란 품사나 의미가 비슷하거나 상반된 어휘가 짝을 이루는 것을 대구라고 하는 한편, 비슷한 구조에서 주요 어휘나 형태만 바뀐 두 개 이상의 짝이 짝을 이루는 것을 교차대구라고 한다.

저자는 서문을 통해 “종종 모임에서 Chiasmus에 관해 물으면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 말씀 이해와 설교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책

을 사용하는데, 핵심 주제를 중앙에 두고 양쪽으로 서로 대칭시켜 가면서 설명하기에 친구와 성경에 수없이 심겨진 교차대구법 즉, 히브리인들의 문학적 특별표현 방법을 꼭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 목사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문맥의 핵심을 보며 진의를 찾고 맛을 보강하여 말씀을 전할 후배 목회자들의 모습을 그리며 기쁨으로 출간하게 됐다고 밝

혔다.

본서는 제 1부 ‘교차 대구법’, 제 2부 ‘알아두면 유익한 성경 속 문학적 표현’으로 크게 나뉘며, 제 1부에는 ‘독특한 히브리인의 문장기법’, ‘교차대구 구조를 배워야 할 이유’, ‘신약에 있는 교차대구 구조의 말씀들’, ‘구약에 있는 교차 대구 구조의 말씀들’, ‘성경에서 교차대구 구문을 찾아 도표 만들기 연습’ 등으로 구분해 신구약에 나와 있는 대구구조의 말씀들을 실제로 제시하며 상세한 설명을 수록했다.

2부에는 ‘담관체’, ‘반복대구법’, ‘역설평행대구법’, ‘반의적 대구법’, ‘동의적 평행대구법’, ‘특별한 예’ 등으로 구분해 쉽게 성경을 이해하며 설교에 도움이 되도록 제시했다.

본 책자에 관한 문의는 저자 최기태 목사(213-505-6755)에게 하면 되고 전도사, 신학생들에게는 무료로 공급한다.

(이성자 기자)

#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http://www.midwest.edu)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최고의 동문을 자랑하는 Midwest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본교의 신학대학(원)은 34년 전통의 복음주의적 초교파 교육기관으로 각 교단을 대표하는 목회자, 선교사, 교수, 기업인, 의사 등 동문들이 현재 전세계 70여개국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음.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20 혹은 J-1 Visa
2.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Midwest University 학위과정**

국제항공대학(원) / 경영대학(원) / 리더십대학원  
국방대학원 / 상담대학원 / 교육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 신학대학(원)

부설: MIRI - Midwest 국제연구소, 국제비즈니스창업센터  
GLI - 글로벌리더십연구소, 국가미래전략연구소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VA-APPROVED (현역, 퇴역 미국 군인 및 가족 장학혜택)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mailto: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mailto: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e@midwest.edu](mailto:wde@midwest.edu)



# 영어로 보는 성경 (46)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Acts 1:6, 7

6) Then they gathered around him and asked him, "Lord, are you at this time going to restore the kingdom to Israel?"

7) He said to them: "It is not for you to know the times or dates the Father has set by his own authority.

8)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NIV 1984)

### WORD & IDIOM

\* 그때, 그 다음에, 그리고, 그러더니 \* gather around ~: ~ 주위에 모이다 \* be going to + 동사의 원형(VR) ~: ~를(을) 하려고 하다 \* at this time: 이때에 \* restore: 회복(복구)시키다 \* restore A to B: B에게 A를 회복시키다 \* it is not for A to+V : to+V 이하는 A 위한 것이 아니다, to+V 이하는 A와 관계없다 \* set: (뜻, 계획 등)을 따로 세우다 \* authority: 권한, 권능 \* the ends of the earth: 땅의 끝

### GRAMMAR

6) Then they gathered around him and asked him.  
그때 그들이 그의 주위로 모였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다

"Lord, are you at this time going to restore the kingdom to Israel?"  
주여 당신이 이때에 (to+V) 이하를 하려 하는가? 왕국을 회복시키는 것 이스라엘에게 => 그때 그들이 그분의 주위로 모여서 그분께 물었다, "주여, 당신께서 이때에 이스라엘에게 왕국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십니까?"

\* 이 문장에서의 (they)는 사도들을 가리키며 (him)은 예수님을 가리킨다(행 1:1-5). (at this time)는 전치사 구로 문장의 중간에 들어가 때를 나타내는 부사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 <will>은 어떤 일을 앞으로 하겠다는 결정의 의미를 나타내고 (be going to + 원형동사)는 이미 하기로 결정을 한 어떤 일을 이제 시작하려한다는 의미를 나타내 준다.

7) He said to them: "It is not for you to know the times or dates the Father has set by his own authority."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to know ~이하는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때와 날짜를 아는 것(은) 아버지가 정했다 (그의, 아버지의) 자신의 권위로 =>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자신의 권위로 아버지께서 정해 놓으신 때와 날짜는 너희가 알바 아니다.

\* <It is not for you to ~>에서 <for> 다음의 <you>가 <to+V ~> 이하의 문장의 의미상 주어가 되고, 전체 문장에서는 <to know ~>가 주어의 기능을 갖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가주어 (it)를 문장의 앞에 놓고 (it)가 무엇인지를 뒤에서 설명하고 있다

8)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그러나 너희는 권능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위에 올 때 그리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안에서 와(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안에서 그리고 땅의 끝까지 =>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때 너희는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안에서와)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안에서)서, 그리고 땅의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 (:)이후의 문장에 4개의 접속사 (and)가 들어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말의 다양한 뉘앙스를 고려하여 해석을 해야 자연스럽다.

### STUDY & THOUGH

■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 당시의 정치적 회복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말(마25:31)의 의미도 현재적인 것으로 이해를 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외세의 압제에서 해방이 되면 자신들도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6절의 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그들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정치적인 기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수난과 죽음으로 여지없이 무산되었고 이제 그들은 곧 있게 될 오순절의 성령강림을 체험하고 그 권능으로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받고 있는 것이다.

■ Jesus is with us at any time and anywhere through the Holy Spirit.

livingstonech@gmail.com

#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 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왕상19:9-14)

호렘산에 도착해서도 엘리야는 여전히 영적으로 탈진한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굴에 들어가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깨우십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명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위로하심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히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큰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여주셔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며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게 들려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심이 느껴질 때 새 힘과 감격이 넘치며 놀라운 회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나 혼자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들이 함께 합니다.

## 화 "너는 네 길을 돌이키라" (왕상19:15-18)

영적인 탈진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의 사명을 다시 확인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하신 후에 곧바로 다시 사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1) "하사엘을 아람왕으로 세우라" 이것은 하사엘을 이스라엘 정계의 채찍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사엘을 왕이 된 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우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사명이 있습니다. 2)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말씀은 아람왕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손쉽게 하고 온 백성을 타락시킨 벌을 그대로 받게 된다는 말씀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3)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 선지자가 되게 하여라" 가장 중요한 사명, 믿음의 아들을 키우는 일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사명은 믿음의 아들딸들을 이 땅에 세워놓고 남겨놓고 가는 것입니다.

## 수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왕상19:19)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만나서 그의 제자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해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누가 엘리야의 대를 이을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먼저 가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지를 알아봅니다. 주목해야 할 단어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다"는 뜻은 "자신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아주

## 목 "저가 소를 버리고" (왕상19:20)

본문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엘리야의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엘리야는 엘리야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즉각 순종합니다. 그는 먼저 소를 버렸습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자기 나라에 대해 깊이 탄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준비를 시키시기 위해서 여러 분과 저를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귀하게 쓰십니다. 오늘 나의 말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사인이 올 때 즉각 순종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 금 "엘리야를 좇으며 수종들었더라" (왕상19:20-21)

본문에서 또 한가지 엘리야를 주목할 것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로 내 부모에게 입맞춘 후에 따르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라는 것을 부모님께 정중하게 인사하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명자의 길은 먼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부

효과적인 전달방식입니다. 요즘도 목사안수를 받을 때 가운을 입혀주는 분들이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다는 사명을 갖고 섬기고 봉사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를 받고 마지막 가족에게 인정받고 부름을 받습니다. 엘리야는 사명을 위해 결단하는 엘리야에게 기꺼이 허락합니다. 엘리야를 섬기고 수종했다는 말씀은 엘리야를 따라서 엘리야가 하는 일을 돕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사랑받는 믿음의 아들을 세웁니다. 함께 최선을 다하며 순종할 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 토 "네 은금은 내것이요" (왕상20:1-3)

왕상 17장부터 계속됐던 엘리야의 사역이 이제 잠시 중단되고 아람왕 시대에 치러졌던 전쟁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람왕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 가장 번성하고 창대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로 비가 다시 왔지만 아람왕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때 아람왕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겠다는 선전포고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본문은 성도가 아무리 형통해도 하

나를 떠나면 한순간에 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람왕 벤하닷은 아람왕조 2세인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남북으로 갈라질 때부터 이스라엘을 침공해 괴롭히던 나라였습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와 "다 내 것이다"라며 아람왕을 협박해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면 한순간에 위험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해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기 소원합니다.



"사랑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_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포드 예배당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Ridgewood 809 Broad Ave, Ridgewoo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 피종진 목사 국내·외 성회 일정

다사다난했던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저를 초청하여 부흥집회를 개최하신 국내외 모든 교회와 교단 그리고 단체와 기관들 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넘치는 축복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단국대학교 문리대학 사학과  
·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및 목회대학원  
· 연세대학교 연한신학대학원  
· 미국 Philadelphia Faith대학원(D, Min)  
· 미국 Henderson C. 대학교(Th, D)  
· Nyskc World Mission(H.Q. New York) 총재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사)세계기독교부흥사협회 대표총재  
(재)세계복음화협의회 대표총재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 대표총재  
· 서울경향신문(33년) 및 서울경향회 회장

HP : 010-5255-7777

## 1월

- 1(화)-2(수) 시흥 제자교회(남보석 목사) ☎ 010-7220-0733
- 2(수) 오전 일산 순복음영선교회(강영선 목사) ☎(031)901-0191
- 3(목) 저녁 세종평화동신교회(피종진 목사) ☎(041)852-2211
- 6(주) 오후 김포 김립교회(조경숙 목사) ☎ 010-8222-1992
- 7(월) 오전 천안 침이름다문교회(안병천 목사) ☎ 010-5398-1038
- 7(월)-9(수) 아산 설화산기도원(노베로 목사) ☎(041)531-0690
- 10(목) 오후 월드기독교총연합회 정기총회  
장소: 서울신학교(학정 김준환 목사) ☎(02)885-9500
- 11(금) 오전 안산 예정교회(이옥희 목사) ☎ 010-9168-0190
- 12(토) 오전 옥천 행복산전원교회(이광일 목사) ☎ 010-5307-9191
- 14(월) 오후 음성 우리순복음교회(정철기 목사) ☎ 010-3499-4000
- 14(월)-16(수) 수원 사랑의교회(안 혁 목사) ☎ 010-5503-0826
- 17(목) 오후 총회(동행) 부흥전도단(대표단장 리종기 목사) 영성수련회  
장소: 대전신학대학교(총장 김영권) ☎(042)606-0114
- 18(금) 오후 서울 성령교회(장아브라함 목사) ☎ 010-3777-1879
- 20(주) 저녁 인천 주안이레교회(도두미아 목사) ☎ 010-5418-2283
- 21(월)-22(화) 청평 강남금식기도원(원장 김성광 목사) ☎(031)584-1001
- 24(목)-25(금) 김천 한광순복음교회(안 혁 목사) ☎ 010-5503-0826
- 25(금) 오전 순복음서울전주조대교회(전태식 목사) ☎ 010-4148-5244
- 27(주) 저녁 서울 열방제자교회(이준환 목사) ☎ 010-8290-1163
- 28(월) 오전 천안 은혜교회(강홍규 목사) ☎(041)573-9344
- 28(월)-30(수) 순천 샘솟는교회(강신성 목사) ☎ 010-8606-0691

## 2월

- 1(금) 저녁 천안 위대연합교회(윤재민 목사) ☎ 010-6352-0691
- 3(주)-5(화) 새창원은혜교회(피은혜 목사) ☎ 010-8540-8642
- 7(목) 오후 김포 김립교회(조경숙 목사) ☎ 010-8222-1992
- 7(목)-9(토) 포항 호산나교회(박민정 목사) ☎ 010-5873-4564
- 10(주) 오전 서울 주님의사랑교회(서사라 목사) ☎ 010-9397-3581
- 10(주) 저녁 서울중앙교회(손지현 목사) ☎ 010-8403-3777
- 11(월)-13(수) 고흥 열림수영원(원장 김지선 목사) ☎(061)833-5157
- 14(목)-16(토) 서울 사랑의빛교회(남보석 목사) ☎ 010-7220-0733
- 17(주)-20(수) 유구 승원교회(이정현 목사) ☎ 010-5491-5369
- 21(목) 오전 동두천 철보산기도원(원장 오일목 목사) ☎ 010-3616-0523
- 21(목) 오후 여의도순복음영평기도원(원장 이태근 목사) ☎(031)772-9113
- 22(금) 오전 오산리최자살기독교원(원장 권경환 목사) ☎(031)947-0091

### 제217차 해외성회(217th Overseas Assembly)

- 22(금)-24(주) 미국(U.S.A) 남가주 현영문화교회(최오성 목사) ☎(714)900-1283
- 24(주) 저녁 미국(U.S.A) 게트르보순복음교회(이선자 목사) ☎(714)220-7660
- 25(월)-26(화) 미국(U.S.A) 오펜키커센터 효교회(김영찬 목사) ☎(562)833-5520
- 27(수) 오후 미국(U.S.A) LA 오직예수교회(샘 신 목사) ☎(213)215-6029

## 3월

- 1(금) 오후 미국(U.S.A) LA 은혜선교회(김관진 목사) ☎(408)206-2337
- 2(토) 새벽 미국(U.S.A) LA 선한목자교회(신인석 목사) ☎(323)733-0642
- 3(주) 오전 미국(U.S.A) LA 생명의빛교회(이창희 목사) ☎(213)675-1405
- 3(주) 오후 미국(U.S.A) 남가주 새누리교회(박성근 목사) ☎(213)383-4982
- 4(월) 오후 7시 미국(U.S.A) 중가주 리틀리 다문화 목회운동 사역자 기념성회(대표장 김관진 목사)
- 5(화) 오후 7시 미국(U.S.A) 엘시노 남가주한인목사회 영성수련회(회장 김관진 목사)
- 8(금) 철야 오산 광은기도원(원장 김현배 목사) ☎(031)668-0553
- 11(월) 오전 민족복음화부흥협의회(총재 우경순 목사) 연수원  
장소: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02)741-4370
- 11(월)-13(수) 인천 동산교회(김지자 목사) ☎ 010-5612-4233
- 14(목)-16(토) 청평 강남금식기도원(원장 김성광 목사) ☎(031)584-1001
- 17(주) 오전 김포 별영교회(안대원 목사) ☎ 010-5353-5432
- 17(주) 저녁 부천 총만교회(최하나 목사) ☎ 010-4881-5250
- 18(월) 오전 오산 아가페힐링교회(제광영 목사) ☎ 010-5452-1691
- 18(월)-21(목) 부산 김립산기도원(이옥란 원장) ☎(055)875-0831

- 22(금) 철야 신탄진 하늘품성결교회(박천문 목사) ☎ 010-2306-7870
- 23(토) 오후 광주 시온교회(안예스터 목사) ☎ 010-7657-2670
- 25(월)-27(수) 광주 빛과사랑교회(리종기 목사) ☎(062)654-8800
- 28(목)-30(토) 아산 평안교회(이은혜 목사) ☎ 010-3435-2456
- 31(주) 저녁 화정 목양교회(이춘봉 목사) ☎ 010-4706-7742

## 4월

- 1(월)-3(수) 광주 살롬선교센터(원장 고정임 목사) ☎(062)432-6392
- 5(금) 오전 오산리최자살기독교원(원장 권경환 목사) ☎(031)947-0091
- 6(토) 오전 서울 명동교회(최한 목사) ☎ 010-3767-0347
- 6(토) 오후 맥아더장군 기념행사(한국 준비위원회 총서문 목사)  
장소: 인천 자유공원 ☎(032)761-4774
- 7(주)-10(수) 파주 세계로교회(주성민 목사) ☎(031)949-9121
- 11(목)-13(토) 인천 천국평교회(김천국 목사) ☎ 010-5414-4641
- 14(주)-17(수) 군포 성정교회(김민기 목사) ☎(031)934-2733
- 18(목)-20(토) 서울 예바다교회(정근자 목사) ☎ 010-3403-9190
- 19(금) 오전 일산 성령교회(김동근 목사) ☎ 010-2358-9232
- 22(월) 오전 KAICAM (사)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회장 송종필 목사)  
장소: 분당 힐스테이트(김승욱 목사) ☎(02)3673-1323

### 제218차 해외성회(218th Overseas Assembly)

- 22(월)-23(화) 베트남(Viet Nam) 다인 영풍회 MT 및 원주인교 ☎ 010-7291-0291  
주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장 강홍규 목사, 준비위원장 김홍희 목사)
- 24(수)-26(금) 베트남(Viet Nam) 호이안 필그림교회(고재성 선교사) 현지인 연합성회
- 27(토) 오전 서울 가락나눔공동체 연합교회(임홍식 목사) ☎ 010-7774-5535
- 28(주) 저녁 서울 사도교회(김보준 목사) ☎ 010-9633-0190
- 29(월)-30(화) 서울 세계말방교회(이태순 목사) ☎ 010-7711-4203

## 5월

- 2(목) 오후 서산 생명순수영원(원장 이화복 목사) ☎ 010-2389-7680
- 2(목)-3(금) 미국(U.S.A) 샬럿 세계사망교회(박형우 목사) ☎(704)281-0080  
국가기도성회(Nation Day of Prayer Service)
- 4(토) 미국(U.S.A) 한미동맹조전연합기도성회  
장소: Charlotte World Prayer Hall
- 5(주) 미국(U.S.A) 샬럿 세계사망교회(박형우 목사) ☎(704)281-0080
- 6(월)-7(화) 미국(U.S.A) 아틀란타 세기미 미주 남부지역성회  
주최: I Pray For All Nation(대표총재 피종진 목사(한국), 대표회장 박형우 목사(미국))  
미국(U.S.A) 아틀란타 한미동맹조전교회(김기형 목사) ☎(404)936-2441
- 8(수) 아산리빛교회(김성권 목사) ☎(041)543-0191
- 10(금) 오전 아산 총복교회(강은숙 목사) ☎ 010-3670-8999
- 13(월) 오전 오산리최자살기독교원(원장 권경환 목사) ☎(031)947-0091
- 17(금) 오전 서울 시온성교회(이후자 목사) ☎ 010-6231-7532
- 21(화) 오전 서울 미리안교회(박은주 원장) ☎ 010-4737-0691
- 23(목) 저녁 단양 별영성원(원장 방은재 목사) ☎(043)422-0695
- 24(금) 오전 안양 결실산기독교원(원장 임재호 목사, 담임 조성근 목사) ☎(031)472-7212
- 26(주) 오후 김포 김립교회(조경숙 목사) ☎ 010-8222-1992
- 27(월)-30(목) 일본(Japan) 연세대학교 총동문 목회자부흥협의회 해외수련회  
(총회 강영선 목사, 대표회장 장형희 목사)

## 6월

- 2(주) 저녁 안산 예정교회(이옥희 목사) ☎ 010-9168-0190
- 3(월)-7(금) 필리핀(Philippines) 세부 부흥협의회 해외 MT & 원주인교  
주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임준식 목사, 준비위원장 전태식 목사)
- 8(토) 오후 서울 세계말방교회(이태순 목사) ☎ 010-7711-4203
- 9(주) 저녁 대전 주안장로교회(전정순 목사) ☎ 010-7291-3377
- 10(월)-12(수) 포항 호산나교회(박민정 목사) ☎ 010-5873-4564
- 14(금) 저녁 대전 하늘품성결교회(박천문 목사) ☎ 010-2306-7870
- 15(토)-16(주) 서울 목양(전)교회(전정열 목사) ☎ 010-3268-7253
- 17(월)-18(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강홍규 목사, 사무총장 김홍희 목사)  
제주도 영성수련회 ☎ 010-7291-0291
- 19(수) 청평 강남금식기도원(원장 김성광 목사) ☎(031)584-1001
- 20(목)-21(금) 부천 초대교회(정오성 목사) ☎ 010-3906-9090
- 24(월)-25(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총동문회(대표회장 함대기 목사) 영성수련회

### 제219차 해외성회(219th Overseas Assembly)

- 27(목) 미국(U.S.A) 라스베가스 뉴루프교회(노은희 목사) ☎(702)628-4621
- 28(금) 미국(U.S.A) LA 평화교회(김은목 목사) ☎(213)251-9191
- 30(주) 오전 미국(U.S.A) 엘버인 방주교회(방익수 목사) ☎(949)232-7333

## 7월

- 1(월)-3(수) 미국(U.S.A) LA 주님의사랑교회(서사라 목사) ☎(213)305-0000
- 7(주) 저녁 광주 순복음금식교회(이재중 목사) ☎(041)853-3217

- 10(수)-11(목) 남미 페루(PERU) 세계기도대성회(주강사: 피종진 목사, 박형우 목사)  
주최: I Pray For All Nation 세계기도대회(대표총재 피종진 목사(한국), 대표회장 박형우 목사(미국), 준비위원장 방도호 선교사(미국), 사무총장 송정희 선교사(필리핀)) ☎(704)261-0080

## 12(금)-13(토)

- 14(주일) 남미 페루(PERU) 원주인 연합성회
- 15(월) 남미 페루(PERU) 원주인 & 한류공연 및 전도대성회
- 16(화) 남미 페루(PERU) 리마 Hotel (Miramar)
- 17(수)-19(금) 서울 임마누엘교회(최은숙 목사) ☎ 010-2213-4448
- 22(월) 오후 여의도순복음영평기도원(원장 이태근 목사) ☎(031)772-9113
- 23(화) 저녁 대구시 중구청 - 동구청 직원예배(주관: 신우회)  
장소: 대구 문화교회(이재범 목사) ☎(053)423-7844
- 24(수)-25(목) 포항 호산나교회(박민정 목사) ☎ 010-5873-4564
- 29(월) 오후 여의도순복음영평기도원(원장 이태근 목사) ☎(031)772-9113

### 제220차 해외성회(220th Overseas Assembly)

- 30(화) 일본(JAPAN) 나리타신학교(학정 김태식 목사) ☎ 090-6535-9118
- 31(수) 일본(JAPAN) 나리타 사랑의교회(정성태 목사) ☎ 070-8625-9118

## 8월

- 1(목)-2(금) 일본(JAPAN) 동경 사랑의교회(김태식 목사, 정성태 목사) ☎ 070-8625-9116
- 5(월)-7(수) 고흥 열림수영원(원장 김지선 목사, 원목 현태영 목사) ☎(061)833-5157
- 8(목) 저녁 세종평화동신교회(피종진 목사) ☎(041)852-2211
- 10(토) 오후 포천 꿈의교회(석경애 목사) ☎ 010-9670-4555
- 12(월)-13(수) 인천 국제은혜교회(김승욱 목사) ☎ 010-5689-0091
- 14(수) 중국(China) 위해 N.Y.U. 선교영터연구원(MEC) 동문 MT
- 15(목)-16(금) 중국(China) 위해 중외국인교회(Foreign School)  
From China to the World 연합성회
- 19(월) 저녁 강릉 베네딕도수도원(원장 이강호 목사) ☎(033)647-1501
- 21(수) 오후 UN 국제종교인권의원 제정 국제대회
- 21(수)-22(목) 대구 글로벌채우센터(강은숙 목사) ☎(053)812-4848
- 22(목) 저녁 아산 신동리교회(전국교회 연합 영성수련회) ☎(031)632-7035  
주최: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총재 이종민 목사, 준비위원장 서사라 목사)
- 24(토) 오전 전주 은혜교회(박종택 목사) ☎ 010-2388-2592
- 28(수) 태국(Thailand) 방콕 경사교회(김영수 목사) ☎ 0066-2682-5308
- 29(목) 태국(Thailand) 방콕 목회자 및 선교사 영성세미나

## 9월

- 2(월)-3(화) 일본(JAPAN) 동경 나리타신학교(학정 김태식 목사) ☎ 090-6535-9118
- 4(수) 일본(JAPAN) 동경 나리타 사랑의교회(정성태 목사) ☎ 070-8625-9116
- 6(금) 오전 서울 임마누엘교회(최은숙 목사) ☎ 010-5405-3197
- 6(금) 철야 오산 광은기도원(원장 김현배 목사) ☎(031)668-0553
- 6(금) 오후 오산리최자살기독교원(원장 권경환 목사) ☎(031)947-0091
- 13(금) 오후 여의도순복음영평기도원(원장 이태근 목사) ☎(031)772-9113
- 17(화) 오전 서울 구기동 영광교회(권병기 목사) ☎(02)391-2466
- 19(목) 오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부흥사(연수원)대표회장 강홍규 목사, 사무총장 김홍희 목사  
장소: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02)741-4370
- 19(목) 오후 서울 열방제자교회(이준환 목사) ☎ 010-7407-4047
- 20(금) 오후 광명 동성교회(이광선 목사) ☎(02)2060-4591
- 20(금) 철야 대전 하늘품성결교회(박천문 목사) ☎ 010-2306-7870
- 21(토) 오후 부천 침복성교회(양유식 목사) ☎ 010-8839-8899
- 22(주) 오후 포천 꿈의교회(석경애 목사) ☎ 010-9670-4555
- 23(월)-25(수) 구미 방주교회(강익수 목사) ☎ 010-8280-0346
- 26(목) 오전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국가초전기도회 ☎(02)741-4370
- 주최: 대한민국사랑운동본부(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박종철 목사)
- 27(금) 오전 인천 감동중앙교회(강신성 목사) ☎(032)569-1480

## 10월

- 9.30(월)-2(수) 일본(JAPAN) 동경 나리타신학교(학정 김태식 목사) ☎ 070-8625-9116
  - 7(월) 오전 서울 주영평교회(박정하 목사) ☎ 010-8898-4947
- ### 제221차 해외성회(221st Overseas Assembly)
- 7(월)-8(화) 미국(U.S.A) LA 한미사모연합세미나  
장소: LA 은혜선교회(김기홍 목사) ☎(714)446-6200
  - 주최: 미주복음방송(상장 이영선 목사), 목회자사모신문사 (이사장 피종진 목사, 발행인 설동욱 목사)
  - 미국(U.S.A) LA 은혜선교회(김관진 목사) ☎(213)321-6019
  - 14(월)-15(화) 태국(Thailand) 방콕 GOODTV 부흥협 강사단 MT  
GOODTV부흥협의회(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안병천 목사, 사무총장 김홍희 목사)
  - 15(화)-17(목) 태국(Thailand) 파타야 아시아선교대회

- 20(주) 오후 김포 김립교회(조경숙 목사) ☎ 010-8222-1992
- 21(월)-24(목) 대구 주암순수영원(원장 박찬애) ☎(053)768-6205
- 24(목) 오후 다림국제예수교회(대예설제장소: 대전 서구문화원) ☎ 010-4519-3259  
주최: 다림국제예수교회(이사장 피종진 목사, 고문 김동준 장로, 총재 정영순 목사)
- 25(금)-27(주) 미국(U.S.A) Las Vegas 뉴루프교회(노은희 목사) ☎(702)628-4621
- 28(월)-30(수) 미국(U.S.A) LA 열림장로교회(장혜숙 목사) ☎(562)745-7474
- 31(목) 오전 미국(U.S.A) LA & 남가주지역 I pray for all Nation 기도대회  
(준비위원장 Sunny Lee) ☎(714)220-7660

## 11월

- 3(주) 저녁 원주 송광사랑의교회(송은애 목사) ☎ 010-8407-7322
- 4(월)-6(수) 아산 설화산기도원(노베로 목사) ☎(041)531-0680
- 7(목) 저녁 성남 주영평교회(전국목 목사) ☎ 010-2445-1691
- 10(주) 오후 서울 시온성교회(이후자 목사) ☎ 010-9733-0500
- 11(월) 오전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총동문회  
장소: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02)2123-4760
- 11(월)-13(수) 속초 중부교회(황제경 목사) ☎ 010-3314-8190
- 15(금) 철야 대전 도곡기도원(원장 이종범 목사) ☎ 010-7918-9191
- 18(월)-19(화) 인천 국제은혜교회(김승욱 목사) ☎ 010-5689-0091
- 20(수) 오전 여의도순복음영평기도원(원장 이태근 목사) ☎(031)772-9113
- 20(수) 오후 갈래계세계선교회(대표회장 최천규 목사) ☎ 010-6777-1412
- 21(목)-23(토) 서울 사랑의빛교회(남보석 목사) ☎ 010-7220-0733
- 22(금) 오전 CTS기독교TV 부흥협의회 부흥사 연수회  
장소: 아산리최자살기(김성권 목사) ☎(041)543-0191
- 24(주) 저녁 화천 광덕교회(이민규 목사) ☎(033)441-4462

### 제222차 해외성회(222nd Overseas Assembly)

- 25(월)-26(화) 필리핀(Philippines) 갈렙바시 Bethel Praise교회(하용철 선교사) ☎ 010-4101-4353
- 27(수) 필리핀(Philippines) 갈렙바시 원주인 사역자 MT

## 12월

- 1(주) 저녁 상주 청리교회(김재원 목사) ☎(054)533-1611
- 2(월)-4(수) 목포 대종교회(김준원 목사) ☎(061)284-8414
- 5(목)-7(토) 서울 열방제자교회(이준환 목사) ☎ 010-8290-1163
- 6(금) 오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장소: 서울연세대학교(총장 현영순 목사) 대강당 ☎(02)2669-2225
- 7(토) 오전 부천 열림교회(곽경영 목사) ☎ 010-8387-7088
- 9(월)-10(화) 청양복음교회(원장(준비위원장) 이재하 목사)  
장소: 청양 칠간사나무 ☎(041)943-8686
- 12(목) 오후 (사)세계복음화협의회(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설동욱 목사) - 국민일보(사장 변재운) 국민대사 상시성 / 장소: 국민일보빌딩 12층
- 13(금) 오전 미국(U.S.A) 동남부노회(노회장 김영민 목사) ☎(770)660-7188
- 13(금)-15(주) 미국(U.S.A) 아틀란타 New Blessing Church(James Song)
- 16(월)-17(화) 미국(U.S.A) 아틀란타 NYSKC 중남부지역연합성회  
장소: 아틀란타 배다교회(남궁진 목사) ☎(770)622-1610  
주최: NYSKC(본부: 뉴욕, 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최고성 목사)
- 18(수) 오전 미국(U.S.A) 동남부노회(노회장 김영민 목사) ☎(704)281-0080
- 18(수) 오후 미국(U.S.A) 아틀란타 주님이동행하는교회(김용성 목사)
- 23(월) 오전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총재 이종민 목사, 대표회장 정형희 목사) 장소: 여천도화관 14층 ☎(02)708-3131
- 25(수) 오후 김포 김립교회(조경숙 목사) ☎ 010-8222-1992
- 26(목) 오전 월드기독교총연합회(대표고문 피종진 목사, 이사장 정진희 목사)  
장소: 서울 새문교회(이태형 목사) ☎(02)2682-2092
- 27(금) 저녁 인천 예수님의교회(노아 목사) ☎ 010-5568-7133
- 29(주) 오전 서울 새문교회(이태형 목사) ☎(02)2682-2092
- 31(화) 철야 서울남서부중앙교회(원로 피종진 목사, 담임 이현근 목사) ☎(02)3411-9191

### 피종진 목사 TV 방송설교 - 평일까지 복음을

- CBS 위성TV방송 TV 부흥강단  
- 매주 주일 오후 5:30 인터넷: www.cbs.co.kr
- GoodTV/방송 생명의 샘터  
- 매주 수요일 오전 11:30(재방송: 매주 목요일 오전 1시)  
인터넷: www.g3tv.com

### 대인애수교 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0(가포동) ☎(02)3411-9191, FAX: (02)401-7770  
E-mail : Godbless3377@gmail.com

